

圓

光

第一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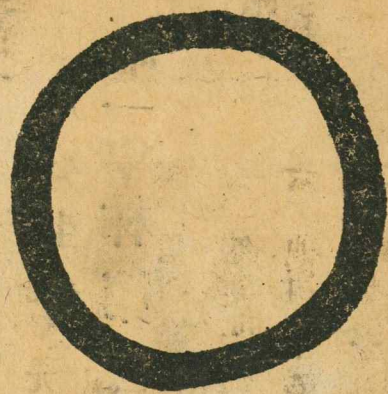
張 書

圓 佛 教 圓 光 社 發 行

教

綱

- 一、心地는 元來 撓亂함이 없건마는 境界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撓亂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自性の 定을 세우자
- 二、心地는 元來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境界를 따라 있어 지나
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自性の 慧를 세우자
- 三、心地는 元來 貪을 없건마는 境界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貪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自性の 戒를 세우자
- 四、信과 忿과 疑의 誠으로써 不信과 貪慾과 懶와 愚를 除去하자
- 五、怨望 生活을 感謝 生活로 돌리자
- 六、他力 生活을 自力 生活로 돌리자
- 七、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 八、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 九、公益心 없는 사람을 公益心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一圓之光

遍照十方

鼎山書

圓光 新刊第一號 目次

教綱 法師님題字 教歌

要言

社說 新刊에 際하여

大宗師法說 金剛山과 그主人 (宋道性受筆) (一一)

法說 白凡先生逝去에 對하여 (李空田受筆) (一七)

說 唯一學林第一回卒業式訓辭 (李空田受筆) (二〇)

論說 佛法の의 妙用 應山 (二六)

爐邊問答 (物心問題 有無問題) 金日鉉 (三〇)

감사 생 활 圓岸 (三四)

(感想) 入教後 나의 感想 韓元培 (三七)

金大學先生의 自問自訓 錫記者 (四〇)

(美行) 金眞權氏의 信仰 監察院 (四二)

講 西洋의 圓相思想 朴光田 (四五)

座 原始佛敎의 人生觀 徐炳宰 (四八)

法義問答 教務部 (三九)

圓光의 發刊을 祝함 金昌峻 (五二)

漢詩 謹輓 白九翁 柳山 (一九)

時調 一圓讚 尹光彦 (四〇)

靈山夕陽吟四題 金勤修 (五七)

詩 나그네의 祈禱 觀照禪人 (五四)

獨步 曹專權 (五八)

歌詞 蓬萊精舍를 찾아서 崔正均 (六〇)

紀行 崔正均 (六〇)

(傳記) 朝鮮高僧傳 (第一回) 靜觀 (六二)

(因緣說話) 雪山童子 圓峰學人 (七〇)

大宗師逸史 (第一回) 金亨悟 (七七)

教界總部位狀況 (八八) 教徒加減 (九一)

消息地方狀況 (八九) 紀念行事通知 (九五)

世紀의 中間報告 編輯室 (九八)

編輯餘談 (九九)

가 고

영산회상 불소식이 다시와
 부처님의 전해주신 심인을
 종자님의 은덕으로 받드니
 우리들의 행복됨이 크도다

어둠에서 고생하던 우리는
 대중화로 고쳐주신 정법에
 일상삼매 일행삼매 힘써서
 동정없는 진여성을 만드세

제생의 제 무적하는 형제들
 고해중생 반야선에 전져서
 일원의 꽃 피어있는 구나에
 영접에서 영접으로 즐기세

言 要

무엇이나 진실(眞實)한 일은 아무리 없으려 하

여도 필경(畢竟)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畢竟)

은 없어지고 마나니라

新 刊 會 報 際 하 여

— 讀者同志 여러분에게 —

(一)

회보(會報) 정간(停刊) 이래 어언 十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그 동안 우리가 늘 계획(計劃)하고 기다리던 기관지(機關誌) 즉

간(續刊)의 건(件)이 이제야 겨우 그 실현(實現)을 보게 되어 본지(本誌)를 여러분 앞에

내어 놓게 되니 비록 아직 초라함을 면하지 못하게 된 선물일찌 모르나마 하여간 기쁘

고 대견한 마음 어찌 비겨 이를테 없을까 세상엔 만일 죽었던 친구가 다시 살아나

나왔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을까? 이름과 모양은 비록 달리 되어 나왔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十년전에 六十五호를 내고는 사세(事勢) 뜻 같지 못하여 중단된 우

터 회보의 속간(續刊)인 것이니 어찌 죽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듯한 기쁨이 없으

수 있겠을까? 여러분!! 다 가지 기뻐하십시오

(二)

우리 교회(教會)가 기관지라 할만한 것을 처음 내게 된 것은 창립한도(創立限度) 제 一

회 기념총회(紀念總會)를 지낸 무진년(戊辰年) 五월이었습니다. 월말통신(月末通信) // 이런 이름으로 법설(法說)과 감각(感覺) 감상(感想) 공부 사업 양계(兩界)의 새 소식등을 또박 또박 복사지로 필기해서 당시의 각 분회(分會)에 배부(配付)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경오년(庚午年) 十二월까지 三十五호가 나갔으며 신미년(辛未年) 一월부터 임신년(壬申年) 三월까지 는 사무 형편으로 중단되었다가 동년 四월에 이르러 프린트로 제 三十五호를 내게 되었고 三十六호부터는 이름을 // 월보(月報)라고 개칭(改稱)하여 제 四十七호까지 내었는데 당시 일제(日帝)의 출판법(出版法) 문제로 부득이 잠시 또 중단되었다가 계유(癸酉) 九월에 출판법 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의 회보(會報)로써 창간호(創刊號)를 발행하여 경진년(庚辰年) 五월까지 六十五호를 내고 우금 근 십년동안 중단되었던 것이 오늘날 원불교(圓佛敎)의 // 월광(圓光) // 으로써 크나큰 사명(使命)을 더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三)

(7)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형편은 실로 낙관(樂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중에도 우리 민족(民族)은 더욱 심한 혼란 속에서 크나큰 곤난(困難)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밖으로 얽혀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람 사람이 정의(正義)와 불의(不義)를 잘 분석(分析)할만한 명민(明敏)한 지혜

(智慧)와 그 아는 바를 그대로 지키고 거느려 쓸만한 마음의 힘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서로 원망(怨望)할 일만 발견하고 감사(感謝)한 일을 발견할 줄 모르며 대중(大衆)을 해하여 다 가라도 저 하나만 이롭고 저 하는 생각이 많은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로 하면 사람 사람이 일심과 아름아리와 실행력(實行力)을 양성해야 할 것이며 원망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한 일을 발견하여 서로 화해(和解)하는 길을 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중을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犧牲)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정신을 함양(涵養)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종교(宗教)의 신앙(信仰)에 근본한 도덕적(道德的) 훈련(訓練)이 필요하며 종교리도 가장 진리적(眞理的)이고 시대적(時代的)인 종교와 도덕이라도 가장 사실적(事實的)이고 대중적(大衆的)인 도덕이 간절히 요청(要請)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時代)에 처(處)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存在)가 얼마나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지(敎旨)의 선양(宣揚)이 얼마나 시급(時急)한가를 아나 느낄 수 없으며 여기에 본지(本誌)가 세상에 나타나는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고 또한 특수한 본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四)

본지(本誌)는 이 시대적인 큰 요청에 의하여 대중이 친근할 수 있는 진리(眞理)의 전달(傳達)을 위해서 출현한 것입니다. 산 이론(理論)으로 누구나 곧 본 받고 행할 수 있

는 체험(體驗)의 교설(敎說)을 전하기로 나왔으며 누구나 가치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곧 보람을 낼 수 있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복음(福音)을 중계(中繼)하기로 나왔읍니다. 따라서 본지는 시창(始創)十九年十一月 회보 제十三호를 비로소 인쇄에 부칠 때의 회설(會說)에 나타난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나아가기로 합니다 즉 "본지는 의부의 화려한 장식(裝飾)보다 내용(內容)의 충실(充實)을 기(期)하겠으며 내부에 있어서도 문과(文波)와 의미(意味)가 쌍진(雙全)하면 좋으나 문과는 종교 의미는 충실하지 못한 것보다는 문과는 약간 불완전하더라도 의미에 있어서 충실한 것을 취할 것이며 어려운 글짜와 전문적(專門的)인 내용을 쓴 고준(高峻)한 이론보다 통속적(通俗的)인 내용을 쓴 대중적 기사를 환영 발표할 것이며 의부의 시사는 평은 一체 삼가하기로 하고 우러의 공부 사업에 대한 평논과 의견 발표를 주로 할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지는 사회의 일반 잡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差異)가 있는 것이니 여터분은 본지를 한낱 잡지로써 대할것이 아니라 오직 한편의 존중한 경전으로 대하고 정신드려 읽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五)

실(實)을 말씀하자면 본지의 출현은 너무 늦었읍니다 적어도 해방(解放)익년(翌年)에는 나타났어야 할 것이었는데 모든 사정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여서 뜻만 두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본지의 출현(出現)은 반갑고 뜻 깊은 일인데 그에 상부(相副)할 아
 무런 조건(條件)이 구비(具備)되지 못하여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허터 본지를 내게 된 것은 여러분의 성의(誠意)에 대하여 신뢰(信賴)하
 는 바가 든든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본지 육성(育成)에 대한 많은 원조(援助)를 베풀
 (劈頭)에서부터 재삼(再三)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피차(彼此)가 이 사업이 결코 등한
 히 알고 있을 적은 사업이 아니라 교회적(教會的)인 중대(重大)한 사업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기(銘記)하고 힘써다면 본지의 장래는 환란할 것이며 본지는 호(號)를 거듭할수록 더
 유덕욱 충실해 질 것입니다. 우리 비록 부족함이 많고 자제(社勢) 아직 미약(微弱)하다
 할찌라도 끝까지 본지를 위하여 본진(奮進)하려는 결심에는 큰 바가 있으니 다 가차이
 정진(精進)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마칠내 만천하(滿天下) 사람이 다 우리를 응원(應援)하고 지지
 (支持)하여 줄 것 입니다. 이에 더욱 힘을 얻어 거룩한 본지의 사명을 다하도록 함께
 정진(精進)하기로 합시다.

金剛山과 그主人

시창(始創)十三년 九월 二十六일 명절기념(名節紀念)을 당하여 일반

대중 (一般大衆)이 대각전(大覺殿)에 운집(雲集)하니 때에 대종사(大宗師) 법좌(法座)에 오르시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대경절(四大慶節)중의 하나인 명절기념일이라 관처에서 손님도 많이 오신 모양이요 본관사람들도 보통 예회와는 달리 생 각하고있는듯 하나 실로 무엇으로써 경절다음게 유쾌히 지낼 것인가 그 재료가 없는듯 하여 심히 민망하도다 저 세상 사람들의 경절 마 지하는 것과 같이 의복을 빛나게 꾸미고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며 또는 각종의 풍악을 베퍼서 심지의 위안을 얻는다면 그 흠 경절이 라는 느낌이 있을는지도 모르거니와 이 경절은 이미 그 세가지가 운대 한가지도 갖출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여러분께 위안 드릴 것이 없는듯 하므로 부득이 무가(無價)의 보물(寶物) 하나를

공중(公中)에 내어 걸기로 하니 여러분이 만약 이 보물의 진상(眞相)을 구경한다면 녀석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의복(衣服) 음식(飲食) 풍악(風樂)보다 이것이 여러분의 바라고 구하는 바인줄 믿노니 원컨대 여러분은 한층 더 정신을 가다듬어 이 보물의 내력을 잘 알아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그의 소유자가 될찌어다

보물이란 무엇을 이름이고 세계에 들도 없는 우리의 금강산(金剛山)이다 기기(奇々) 절승(絶勝)한 만 二천 봉의 웅자(雄姿)와 사시로 변태되는 천연의 경색은 보는 자로 하여금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현하 조선의 상태로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무 것도 자랑할만한 것이 없지마는 오직 우리의 금강산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이목이 열릴수록 더욱더욱 성가(聲價)가 높아지며 세계인(世界人)의 숭앙을 받게 되어 동서양 어느 나라 사람을 물론하고 금강산이라면 말만 들어도 기뻐하여 금강산을 구경한 사람이면 그로써 유일의 자랑거리를 삼으며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면 한번 구경하기가 평생 소원이라 한다

나는 혹 어느 때 조선 사람 된 것이 불행인가? 하고 생각해 본적 불행이 아니라 행(幸)이었다 어찌 행일고? 금강산이 조선에 있으므로서이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들어날 것이다 금강산을 말할 때에는 조선을 연상(聯想)하게 되고 조선을 말할 때에는 금강산을 연상하게 되니 조선과 금강산과는 서로 떼날 수 없는 사이며 조선은 들어나기 싫어도 필경 금강산을 따라서 들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헛되이 강산(江山)의 이름만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니 그만한 강산 그 좋은 보물이 있을 때에 어찌 그 주인이 없으랴? 주인이 있으되 상당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반듯한 집간이나 지니고 자기도(自己土)마지거나 경작(耕作)하는 그 주인도 간간으로 그것을 유지(維持)할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세계의 명물인 금강산을 지니고 있는 그 주인이라? 산이 세계의 명산만큼 주인도 세계의 명인(名人)일 것이다 또 이것이 다른 물건 같이 사고 팔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랴 다른 사람들이 비평(批評)하기를 지금은 네 것이지 마는 너희는

그러한 보물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남의 소유(所有)가 될 것이라
 고 하겠지마는 오직 이 금강산은 팔래야 팔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고 버릴
 래야 버릴 수도 없는 하늘이 점지하신 조선의 보물이다 그 주인이 아무리 학
 식없고 권리 없고 가난하고 천(賤)하고 고국 산천을 다 버리고 동서 남북에
 유리(流離)하여 남의 집의 밥을 빌려 다닐찌라도 저 금강산만은 조선을 여
 이지 않는다 하고 견립(堅立) 부동(不動)할 것이니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현
 상(現狀)을 비관(悲觀)하지 말라 무가(無價)의 중보(重寶)요 광명(光明)의
 뿌리인 금강산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요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니라

저 금강산의 경개(景概)를 담(耽)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에는 그 주인은
 본체 만체 하여두고 다 못강산만 찬미(讚美)하거나 그네들도 지식이 열릴
 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점점 그 보물의 주인이 있을 것을 깨달을 것이며 주인
 이 있을 것을 깨달은 때에는 그 주인 만나기를 발원(發願)하여 필경은 금강
 산을 사랑하기보다 그 주인 찾기에 노력할 것이니 근일(近日) 금강산의 발원
 (發願)되는 것을 본적 숨어 있는 주인이 나타나기 있다 하고 소리 높여 대답

할 날도 멀지 않을 줄로 확신 하노라

바라노니 여러분이여! 금강산이 될찌어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金剛)이 있으니 저 금강산과 같이 조성하며 저 금강산과 같이 환영받기를 서원할찌어다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이 되기로 할찌던 금강산과 같이 순실(純實)하여라 허다한 산가운데 오직 금강산이 그 장한 명망을 얻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외모를 일부러 꾸며가지고 남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연한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건마는 문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귀엽다 하고 사랑하나니 여러분도 마땅히 모든 일을 할 때에 외식(外飾)을 삼가 하고 실질(實質)을 주장하여 순연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잃지 말찌어다

금강산이 되기로 할찌던 금강산과 같이 정중(鄭重)하여라 천고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서 몇번이나 시대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얼마나 맹목자에게 몰라 줌을 당했던고? 그러하되 금강산은 남이 자체를 몰라 줌에 노(怒)한 일도 없었으며 또는 사랑함에 끌리지도 않았을 것이니 여러분도 마땅

히 남이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며 알아주고 몰라주는 데에 끌리지 말찌어다
 금강산이 되기로 할찌던 금강산과 같이 견고(堅固)하여라 금강산은 조선
 에 쪼이 뿌리를 박아두고 어떠한 비풍참우(悲風慘雨)가 몰려 올찌라도 조금
 도 요동하거나 옮겨 감이 없었나니 여러분도 한번 당연한 곳에 그쳤거던 아
 무리 천신만고를 당할찌라도 돈독한 신성과 굳센 의지를 변하거나 굴하지 말
 찌어다 그러면 금강산은 체(體)가 되고 사람은 용(用)이 될찌라 체(體)는 정
 (靜)하고 용(用)은 동(動)하나니 금강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금강산 노릇
 을 하려니와 사람으로서 금강산의 용(用)이 되기로 할찌던 잘 움지
 겨야만 될 것이다

여러분이여! 어서어서 인도(人道)의 요법(要法)을 부지런히 연마하여 세
 계의 모든 산 가운데 홀로 금강산이 들어나듯이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 받는
 사람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찌어다

그러면 강산과 더부러 사람이 아울러 찬란(燦爛)한 광채(光彩)를 발휘(發
 揮)하리라 하시더라 (宋道性 受筆)

白凡先生逝去에 對하여

六月 二十六日 白凡 金九先生이 一青年에게 被襲 急逝하셨다는 報道를 듣고 法師님 痛

憤한 마음을 抑制하지 못하여 한참동안 默然하시다가 大衆을 向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先生의 逝去는 우리 民族의 크나큰 損失일 뿐 아니라 八十平生을 오로지 祖國 光復과

民族 自由를 爲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純一한 愛國者를 所謂 우리 民族으로서 害

를 加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言語道斷이며 外國 사람들에게도 蔑할 수 없는 羞恥라고 생

각한다 사람이 제 손으로 제 눈을 빼다든지 제 목을 찌른다면 정신 없는 미친 사람이

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제 民族으로서 제 民族을 極히 사랑하신 領導者를 殺害하

였다는 것은 제 눈을 빼고 제 목을 지르는 미친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 하리오 참으로

痛嘆할 일이다

나는 宗教家이므로 그 先生을 政治的 關係으로써 親近한 것은 아니나 오직 그 先生의

壯하진 마음을 恒時 尊敬하고 崇拜하므로 可謂 心月相照의 情義가 진느게 되었는바 그

壯하진 마음이란 果然 무엇인가? 하나는 百折不屈의 「義」요 하나는 周到密密의 「信」이오

하나는 勤儉實行的 「力」이다

百折不屈의 義라 함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先生이 國母報讐의 舉義로 비롯하

여 解放의 첫소리를 傳할 때까지 死線을 몇번 넘었으며 말 못할 苦楚는 그 열이나 當하

셨던가? 뿐만 아니라 過去 몇年동안 日帝의 全盛時代에 있어서 祖國 光復이 可謂 餘

望이 없는 지경에 있지 아니 하였는가! 그러나 先生은 眞實한 몇몇 愛國同志와 함께

오직 곳곳한 마음으로 成敗 利鈍과 死生 苦樂을 超越하여 끝까지 싸와 왔으니 이 어찌

한때의 義憤으로써 環境따라 變遷하는 普通 마음에 比하리오 참 이른바 百折不屈의 眞正

한 義라 할 것이며

周到密密의 信이라 하는 것은 先生이 還國하신 後로 바로 高宗皇帝의 陵을 비롯하여

그前 同志들의 墓所에 參拜한다 그 遺家族를 訪問한다 亡命時代에 恩惠를 받은 여러분

에게 그 情을 表한다 하는 것이 모다 옛 因緣 옛 情誼를 그대로 表現하고 조금도 自慢

한 마음과 疎忽한 態度가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周到密密한 信이라 할 것이며

勤儉實行的 力이라 하는 것은 八十高齡의 老人으로서 조금도 怠惰의 기운이 보이지 아

니하고 衣服 飲食이 恒時 儉素 節約하며 或 金錢과 物品 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儼양戰

災同胞나 孤兒事業 같은데에 惠施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勤儉實行的 力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先生의 이 壯하신 마음을 追慕하는 同時에 우리 會上 運轉에도 또한 그와 같

은 마음으로 個個히 推進한다면 이 會上 發展에 큰 힘이 될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正當한 道에 立脚하였거던 어떠한 千辛萬苦를 當할찌라도 利害와 苦樂과 生死를 不顧하고 끝끝내 屈하지 아니할 大義를 세우며 한번 同志로써 同苦 同樂을 맹서하고 情義로써 사귀었거던 어떠한 處地에 있게 되던지 그 지키는 바 信을 길이 變하지 말며 한번 이 事業을 기어하 成就하기로 發願하였거던 어떤 일을 하게 되던지 活動은 늘 부지런히 하고 需用은 늘 儉素히 하여 永遠한 世上에 이 大事業을 圓滿히 成就하도록 努力할찌어다 이것이 곧 白凡先生을 길이 追慕하는 길이 되며 白凡先生의 愛族之情에 報答하는 길이 될까 하노라」 하시더라 (李空田 受筆)

謹 輓 白 凡 翁

柳 山

韓族千年有此翁
天何今日奪英雄
道成麻谷觀心佛
兵起首陽總角童

囚夢再吞旄上雪
賊魂幾哭劍頭風
北愁未滌身先喪
萬淚滂々訴太空

法說

唯一學林第一回卒業式訓辭

日창 三十四年 四月 七日 유일학림 제一回 졸업식에 당하여 법자님 법좌에 오르시사
 졸업생 일동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일학림은 선 종사님께서 생전에 늘 그 설립(設立)
 을 계획하시었으나 일정(日政)의 방해로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한(恨) 많은 유지(遺志)
 의 실현(實現)으로 모든 사정이 크게 어려운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도 해방(解放)의 감격
 과 아울러 창설(創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큰 곤난을 기백히
 받았으며 모든 설비가 원전하지 못함대다가 경험이 없는 랫도 있어서 교수문제(教授問題)
 라든지 교재문제(教材問題)를 하나도 뜻과 같이 해결해 보지 못하고 三년을 서로 말못할
 교생을 하여나가며 여섯일을 해 왔던 것이다

세상 대세로 보나 교회의 전도로 보나 꼭 잘 해 나가야만 되었는데 형편이 그리되지
 못하여서 만족하게 공부는 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고된 일만 너무 시킨 것이 유감도 되
 는 동시에 미안하기도 짝이 없다 큰 공의(公議)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학림의 존폐문제
 (存廢問題)가 상정(上程)이 되었으니 그때마다 제군(諸君)의 마음인들 오직하였으랴마는 우
 리의 심경인들 어떠했겠는가?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일은 뜻 두고 못해주는 일인가한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고된 생활이란 당할 때에는 괴로운 것이지만 당하고 나면 큰 보물이 되는 것이니 삼년 고생이 재군을 꼭 단단한 구슬을 만들어서 꼭 미래의 대성(大成)을 가져 오게 할 줄 믿는다 고생스럽게 공부한 재군아! 그것을 자랑스럽게 알고 세상에 나가거라 나는 그래도 우리 몇간 양철집 학림을 다른 몇층 양옥의 대학교보다 자랑스럽게 보아 오고 있으며 몇사람 안되는 재군을 세상의 어떤 인물 몇 백명보다 더 귀엽고 중하게 여기고 있다

무슨 사업이나 초창기(初創期)에는 의례히 그렇게 학미(寒微)한 것이며 창립주(創立主)는 의례히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법이란다. 내 들으니 서울 어떤 부호(富豪)의 집 사당(祠堂)에는 소금지개를 피시고 위한다더라 그것은 자기네 조상이 소금장수를 하여 그 살림을 이룬 관계로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하더라 소금지개가 친한 것 같지마는 그 집의 부(富)의 지가 된 것이니 재군의 학림 삼년 고생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교육사업에 거룩한 종자가 될 것을 그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

재군아! 우리의 사업을 회고해 보아라 모든 것이 선배 여러 선생님의 피와 땀을 모은 것이니 처음 방언(防彦)으로부터 엿장수를 한다 농사를 짓는다 축산을 한다 파수원을 한다 약국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製絲工場)에를 다닌다 고무공장을 다닌다 하

여 근검저축으로 그야말로 자수성가(白手成家)하신 것이 아니냐? 또 그 선생님들 중에는 학림은 고사(姑捨)하고 열중(年中) 삼개월 전이더라도 마음 놓고 참가한 이가 몇분이냐 되는 냐? 제군의 고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비하면 호강스러웠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니 어느 사업을 물론하고 그 성립의 순서가 대개 이러한 것이요 후진이 선배를 특별히 추모(追慕)하고 숭배하는 것이 그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의 생명은 신심(信心)이요 사업의 동력(動力)은 공심(公心)이다 제군에게 이 두가지가 갖추어 있다면 비록 한직이 적을지라도 진도가 양양할 것이다 다른 것에 부족을 느끼지 말고 오직 내 신심의 정도를 살펴서 그에 부족을 느끼며 다른 것만 갖추려고 애 쓰지 말고 오직 내 공심의 정도를 살펴서 그것을 갖추기에 애를 쓰라 그러면 바로 법(法)의 집 혈통적자(血統嫡子)가 되고 공(公)의 집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다

교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한 가지 않는 바 아니지만은 교수의 제일 요건은 가르치는 성의(誠意)일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야 어찌 다른 데서 그 유례(類例)를 구할 수 있겠으며 교질의 미비(未備)를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은 학교의 참 가치는 그 가르치는 근본정신과 출신자(出身者)의 활용(活用) 여하(如何)에 고하(高下)되는 것이지 점의 용태하고 못한 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다시 무엇을 불만하게 생각할 것이 있겠는가? 현 시대의 필요한 학문의 대요(大要)를 배우는

동시에 정신적 방면에 들어가서 신앙과 공심 양성(公心養成)의 교육이며 예의와 근로정신의 교육이며 생활에 직접 필요한 인도정의(人道正義)의 대도를 연마시켜 재 세상의 빛나는 일꾼들을 막 길러내는 곳이라는 점에서 나는 「유일학림」을 이름 그대로 세상에 유일학한 학원(學園)으로 자랑하노니 제군도 그만큼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좋은 재주를 국한(局限)있는 적은 사업에만 사용하지 말고 일체 대중을 위하는 국한없는 큰 사업에 널리 활용하여 이름과 실(實)이 쌍(雙)으로 아름답게 하여주기 바란다 제군은 어렵게나마 三년을 마치게 했으니 대결한 일이나 앞으로 제2기생 문제를 내 근심은 계속되게 생겼다 욕심대로 하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는 모든 시설을 좀 더 넓히게 해주고 싶으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제가 허락되지 않는 한 역시 별 수 없이 제군에게 시킨 고생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시킬 모양이니 딱한 일이다. 모교(母校)를 사랑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 한다 교중(敎中)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도 특별히 제군의 노고를 위하여 더욱 유념(有念)하고 노력하여라 그러는 길로는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경제적 방면으로 늘 유념하여 모교 육성(育成)에 원호의 정신을 발휘하는 길이요 하나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인행을 할 때에 언제나 무심히 하지 말고 늘 유념하여 유일학림 졸업생으로서의 가치를 잘 발휘하여 그 아름다운 명예를 모교에 회향(回向)하는 길이다 제군이 이 두 길을 잘 실행해 준다면 유일학림의 유지 발전은 여반장(如反掌)일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은 실로 제군의 의무이니 개인의 이름이나 편함이나 이곳을 생각지 말고

모든것을 공도에 회향하여 우리 사업의 만년대계에 크 주추를 굳게 하여주기 바란다
 우리의 직업은 교화사업이다 우리는 교화로써 종업(宗業)을 삼는다 이 사업을 제일 장
 한 사업으로 안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로 일체중생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
 장큰이 사업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사업인가? 같은 이익중에도 한정있는 돈이나 권
 세로 주는 일시적 이익이 아니오 미(迷)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악한 자를 착하게 하고
 타락한 자를 올타오게 하여 무한한 행복문로(慧福門路)를 열어 주어서 영생(永生)의 이익
 을 얻게 하는 이 사업을 어찌 소소한 다른 사업에 비하여서 논(論)하거나 할 바인가
 성자(聖者)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성스런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곧 성자인 것이니
 우리가 이대로 곧 높고 귀한 성도(聖徒)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신성한 업부를 두
 어찌에 질머지고 새 세상의 일터로 나가게 된 제군아! 각기 소장 따라 기극 따라 어
 면 모로 든지 이 사업에 큰 성과(成果)를 내어 바로 이 천부(天賦)의 정업(聖業)을
 완수(完遂)하여라 이것이 또한 제군을 가르쳐 주고 제군을 육성 하노라고 여러 모로 애
 를 쓰신 여러 고마운 이들에 대한 유일한 보은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제군은 학림의 학과는 마쳤지만은 정말로 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의 공
 부는 이제부더의 참 공부를 위한 기초 공부였다 앞으로 하는 공부를 잘만 하고보면 그
 야말로 장부(丈夫)의 농사(能事)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그 참 공부란 곧 일하면서 공

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바로 그대로 보살도(菩薩道)를 성취하는 사상공부(事上工夫)다
 이 공부에 힘쓰고 이 사업에 종사 하여 제군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군이 당한
 고초를 제군의 후진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정신 번쩍 차리고 좀 잘 해
 달라 제군의 일인일동(一言一動)이 앞으로 학림의 사업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사
 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 온다는 것을 하여 한때라도 잊지 말라

들으니 한때 어우러져 다정하게 지내다가 갈라기가 섭섭하다 한다니 인정에 당연한 일
 이라 누 또한 그런 정이 없겠는가? 교생도 지내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追憶)이 되는
 것이어든 그러나 사해(四海)를 내걸 삼고 혹동혹서(或東或西)에 관자재(觀自在)의 대
 비행(大悲行)을 일 잠을 수연도중(隨緣度衆)의 제군이매 이만쯤의 별리(別離)는 별리가 아
 니오 다음으로 서로 비켜 제는 천리 만리가 한 도량(道場)일까 하노니 명량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직장으로 향하여라

봄은 산천(山川)의 격할(隔濶)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法會)의 일석(一席)에 있으며 일은
 천천가지가 서로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信誠一念)에 근원해서 부끄럽히 부끄럽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境界)에 오르는 도(道)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건전한 심신으로 재재 처처(在在處處)에 부처님의 가호(加護)하심을 받아
 눈부신 활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하시더라 (李空田 受筆)

說 論

佛 法 的 妙 用

佛法弘布는 人類救濟의 捷徑이다

應 山

佛법은 天地의 眞理요 宇宙의 光明이다

空間的으로 十方에 充滿하여 洋洋히 躍動하고 時間的으로 三世를 通貫하여 如々히 常

存하나니 生成變化의 妙法이 끊임없이 運行하며 因果報應의 法則이 歷々히 循環하여

自然界를 通하여 千差萬別의 姿態를 나타내나니 佛 東山에 아름다운 꽃봉오리는 香내

를 풍기고 있으며 아름 들 앞에 꽃다운 풀포기는 새 음을 트고 있다 無限한 長空

에 소리개가 悠悠히 떠오르고 깊은 못 속에는 고기가 活潑히 뛰놀고 있다 이것이

모다 佛法の 妙用이로다 一翠竹黃花가 常說般若요 風柯月渚가 現露眞

心이라(푸른 대 누른 꽃이 항상 반야를 설

하고 바람가지 달 물같이 참 마음을 끌어

낸다)는 古德의 詩句도 이 消息을 傳한 것일

다 이것이 곧 無盡藏의 寶庫이요 산 法寶

의 經傳이니 이 얼마나 奇妙한가? 또 有情界를 通하여 열槃妙心이요 菩提心이요 圓

明佛性으로 되어있다 經에 『一切衆生이 皆有佛性이라』 하였고 中庸에 『天命之謂性』이라

하였나니 곧 이를 말한 것이다 느낌을 應하고 機를 따라 어느 境遇에는

『忠』으로 나타나고 어느 境遇에는 『孝』로 나타나고 어느 境遇에는 『正義』로 나타나고 어느 境遇에는 『慈悲』로 나타나고 어느 境遇에는 『勇氣』로 나타나고 어느 境遇에는 『藝術』

로 나타나는 것이다

古今 東西의 各層 人物을 通하여 各樣

各색으로 流出되나니 孔子는 「仁」으로 나라

내고 基督은 「사랑」으로 나라내고다 伯夷 叔

齊의 「節義」도 顏淵 仲弓의 「德行」도 여기

나온 것이며 張良 諸葛의 「智謀」도 李白

杜甫의 「文章」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며 圍隱

冶隱의 「忠節」도 退溪 栗谷의 「道德」도 이

로조차 나온 것이다 經에 이른바 「無上法王

의 大陀羅尼門이 있으니 一切 淸淨한 眞如

와 열반과菩提가 流出한다」는 것이 곧

이것을 이름이다

이로써 본다면 隱然한 가운데 어느 地域

에나 佛法이 遍在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어느 時代나 佛法이 流行하지 않는 때가

없으며 어느 물건이나 佛法을 벗어날 자

없나니 東西古今을 勿論하고 自然界와 人間

界를 網羅하여 알던 모르던 佛法은 그대로

運行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다를찌언정

곧 한가지의 그 眞理이다

이는 宇宙의 共通된 眞理어늘 어찌하여

特別히 「佛法」이라 名稱하는가? 그는 宇宙

間에 固有한 眞理를 釋迦世尊께서나 우리

大宗師 같은 어른이 大覺하셨으므로 그를

「佛」이라 名稱한데 不過하나니 「佛」이란것은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佛法」이란

「깨친 法」이라 하여도 可하고 「깨치신 어

른이 대신 法」이라 하여도 可하다 그러므

로 佛法이란 어느 한 부처님의 創造가 아

나오 오직 眞理 그대로의 發明인 것이다

그러나 眞理가 이 깨치신 어른으로부터 이

世上에 알려지며 成文化하고 宗教化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님의 專門 所有 같이

되었다

眞理 이 물건을 法身佛이라고 하며 또는

毗盧遮那佛이라고 하나니 곧 光明遍照覺

이란 뜻이다 佛法은 곧 「光明」을 意味한

것이니 暗黒을 照破하는 能力이 있기 때문

에 이른바 「佛日光明이 遍照一切」라 하였다

自然界에 있어서는 연체나 佛法이 如實히

나타나 增減이 없건다는 人間界에 있어서는

말아졌다 어두어졌다 하는 無常의 變態가

있는 것이니 佛法이 들어나면 그 世上은

밝아지는 것이요 佛法이 숨어지면 그 世上
 은 어두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에는 妄想煩惱라는 妖雲霧氣가 있어 明朗한
 佛性光明을 가리우기 때문이다 마치 저 明
 朗天空에 구름이 끼면 어둡고 구름이 질히
 면 本然 그대로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世上이란 個人々々の 마음의 總合體이
 므로 世上이 어둡고 밝아지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 佛性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
 는데 反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上이 어
 두어질수록 佛法의 教化가 要求되는 것이다
 우리 目前에 展開된 現世界를 살펴보면
 소름이 치고 눈물이 나온다 科學은 發達될
 수록 道德은 沒落되어지고 物質은 發達될
 수록 慾心은 熾盛해지고 人智는 鍛鍊될수록
 競爭은 甚해진다 貪嗔痴의 三毒 불이 온
 누리를 다 태우나니 佛法의 光明은 千重萬
 重으로 黯黑의 煙幕속에 파묻혀 버렸다 이
 속에는 嫉妬와 鬪爭과 欺瞞과 怨恨의 修羅
 場이 展開되어 있다 이 混亂과 罪惡이 어데
 로 조차 起因되었는가? 이는 오직 사람들

의 마음 속에 無明感雲이 佛性 自
 體를 가리어 버린데 起因된 것이다 正見을
 邪見으로 正義를 不義로 顛倒視한 것이니
 이대로 간다면 將次 어떠한 末路가 나타날
 는지 너무도 寒心할 일이다

우리 人類는 이 最大의 危機에 直面하였
 다 이때 救濟의 應急策은 무엇일까? 病에
 는 藥이라야 되고 불이 라는데는 물이라야
 되나니 混亂한 이 世上을 救하는데는 佛法
 의 光明이타야만 된다 佛法은 이 世上에 破
 滅의 病根이 되는 人類의 貪嗔 三毒心을
 徹底히 掃蕩하고 圓明清淨한 本心을 如實히
 發現시키는 가장 훌륭한 妙力을 가졌기 때문
 이다 人類의 平和를 이루고져 할전면 먼저
 各個人의 마음속에서 平和가 일어나야 될 것
 이니 아무리 무서운 武力으로써 世上을
 掃蕩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峻嚴한 法律으로써
 모든 罪人을 撲滅한다 하더라도 이 人間의
 三毒心の 뿌리가 박혀 있는 限 世上의 混
 亂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뿌리를 두고
 枝葉만 끊는 것은 아무 效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類의 마음을 淨化시키는 佛法의 教化運動이 이때에 緊急히 要請되나니 이것이 곧 救世의 捷徑이 될 것이다

이서 速히 佛法의 光明이 한줄기 한줄기씩 個人 個人의 마음에 참으로 스며들여 가서 大變化를 이루려야 할 것이다 저 侵襲者에게 正義心を 이르게라 빼앗으려던 毒手가 제절로 놓아질 것이다 저 暴漢에게 慈悲를 넘

어 주어라 잡았던 칼이 제절로 떨어질 것이다 저 盜賊에게 廉恥心을 돌려 주어라 懺悔의 눈물을 흘리고 義人으로 재出發을 할 것이다 저 貪利輩에게 公益心을 부여 주어라 布施行의 시작될 것이다 저 怨望者에게 恩惠를 일깨워 주어라 그에게서 感謝心과 平和行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곧 五欲의 구름 속에

묻혔던 各人の 佛性이 發現되는 것이니 여기에 따라 世界에 묻혔던 佛法이 次々 光明을 發揮하게 될 것이며 世界の 平和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漠然한 말 같으나 佛法이란 곧 眞理이므로 그는 生成發展의 힘이 있

는 것이다 이 힘의 고나풀이 個人의 마음에 뿌리를 박아 널리 宇宙를 通하여 遍滿하여 있으므로 個人 自身이 이 眞理의 고나풀은 붓잡아 眞心으로 努力한다면 自己一身으로부터 한자람 누사탐으로 百千자람까지 미처 온 世界에 普及된 것이다

끝

남에게 원억(冤抑)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보복(報復)하나니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神明)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爐邊問答

(舊稿)

有耶? 無耶? 心耶? 物耶?

金日鉉

北風 불고 눈보라 치는 어떤 겨울날 화

뜻을 앞에 놓고 손바닥 부리며 앉았노라니

어떤 靑年紳士 한분이 찾아 왔다 치운날

찾아 줌이 感謝하여 親切히 迎接하여 뜻뜻

한 화룻불을 가운데 놓고 둘러 앉으니 그

는 近洞 居住의 所謂 智識靑年으로 來訪의

뜻은 本敎의 趣旨와 近來 學界의 論點이

되는 心の 存在 有無와 心이나? 物이나?

의 問題를 물어 묻고저 하는 것이었다 그

때 그와 더불어 數時間 동안 論議한 바가

있었는데 그 答辯의 要旨만을 概括적으로

이 紙上에 發表하여 여러분의 批正을 乞하

는 마이다

客「貴 敎會에서는 마음 工夫를 한다 하

니 그 마음이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 할전덴 仔細히 물어 보여 주

십시오」

나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

고 그 있는 것을 자상히 물어 보여 달라

하시니 먼저 貴下에게 反問하고자 합니다 貴

下가 이곳에 오실 때 本 敎會를 찾아와서

心之有無를 물어 보리라 하는 마음이 있어

서 왔습니까? 없이 왔습니까?」

客「있어서 왔읍니다」

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들어 보여 줄 수 없습니까?」

客「.....」

나 「우리가 六根은 通하여 모든 일을

行使할 때 마음의 부림이 아니면 成立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古聖의 말씀에 「心

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고 聽而不聞」이라

하였읍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있

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할 것이요 혀가 있어도 맛을 모를 것이요 몸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 하시되 『마음은 主人이 되고 肉身은 主부름꾼이 된다』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되 『肉身은 잠간 지어진 거짓 我요 마음이야말로 永滅不滅한 眞我』라 하셨으니 이것이다 마음의 所在을 明言하십시오 합시다 다만 形精이 없는 것이라 들어서 보여 줄 수 없음을 밝힙니다」

客—그렇다면 그 主人인 마음이란 物質的인 것입니까? 非物質的인 것입니까? 近來 學界에서 말하기를 사람이란 構造의 纖細한 機械와 같아서 所謂 心이란 中樞神經 腦細胞의 作用이라 하나니 저 機械도 모든 調節이 잘 맞고 水火作用이 제대로 되면 스스로 그 機能을 發揮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亦是 사람이란 한 機械의 作用으로 서 作用을 부리다가 그 作用에 異常이 생길 때 病이라고 아조 될 때 죽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나는 科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인은 못 하겠읍니다 마는 그럴듯 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大抵 사람이란 한개의 機械의 움직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生覺해 보면 저 機械의 完備된 飛行 機가 太平洋을 橫斷하고 軍艦 汽船이 太西洋을 航行하며 汽車가 西伯利亞 大陸을 疾走할 때 거기에는 그를 操縱하는 機士가 있을 것이요 設使 그 機士도 機械의 一部라고 하더라도 그 機士의 마음이 움직여 運轉을 始作하지 아니하면 그 機械가 제 스스로 能히 움직일 수 있겠읍니까? 그 機械는 千年을 간다해도 버려둔 無用之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우리 六根이 俱備해 있고 腦細胞의 組織이 緻密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形相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무엇 即 마음이 없으면 一切는 空殼이요 無用한 허수아비며 죽은 屍體와 같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있기는 分明히 있는 것이지만은 번연히 있는 그

마음을 찾아 내어 보이자나 찾아 보일 길
 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四祖 道信大師가
 三祖 僧燦大師에게 묻되 『弟子는 어떻게 하
 여 이 安定되지 않는 마음을 安定하오리까』
 하니 三祖 말씀하시되 『그 마음을 가져 오
 너라 그러 하면 내 너에게 安心을 시켜
 주리라』 하였읍니다 四祖 아무리 찾아도 찾
 을 수가 없어서 말씀하시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 한대 三祖 말씀하시되
 『내 허미 너에게 安心을 시켜 마쳤노라』
 하니 四祖 言下에 大悟하여 衣鉢을 받았다
 합니다 果然 마음은 無形 하여 볼래야 볼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本敎에서는 이 마음을 찾는 「工夫
 와 마음 지키고 쓰는 工夫를 하는 바이다
 過去 諸佛賢聖도 이 외에 다른것을 求하고
 勸하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千佛萬聖도
 다 이 마음을 잡아 내어 보여 주지는 못
 하셨으니 그는 元來 無形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卽 우리의 마음이란 하늘의 虛空 氣運
 들 應한 것이오 肉身이란 땅의 地·水·火

風 氣運을 말아 난 것이라 하늘의 空氣는
 있기는 分明히 있으나 形相이 없으니 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며 땅의 地·水·
 火·風은 形相이 있어서 불 수도 있고 잡
 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이 虛空에 根源한
 마음은 無形하여 그 體相을 잡을 수 없으
 며 땅에 根源한 肉身은 有形하여 體相이
 宛然한 것입니다 그러나 有形의 萬物은 畢
 竟 없어지나니 그 時日의 長短은 있을지언
 정 生滅 盛衰가 無數하여 刹那刹那 時時 刻
 刻으로 無常變遷하여 生者死하고 死者生하
 나니 그러므로 經에 이르시되 「凡所有相이
 皆是虛妄」이라 한 것입니다 이 世上 나라이
 있는 物件 치고 그대로 永遠히 存在해 있
 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나 다 못 無
 形한 마음은 저 虛空과 같이 不生不滅하여
 永遠無窮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肉
 身이란 住宅을 일으면 肉身的 壽命이 계속
 되는 동안 現實作用을 하다가 그 壽命이
 다하면 肉身은 흐러져서 地·水·火·風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獨存하여 虛空에 合하였다

가 지은바 業力을 따라 因緣을 만나면 다
 지 生을 일체 되는 것입니다 比하건대 가
 음에 버릴 겨우면 今年的 그 그루는 죽어
 버리나 버의 종자는 翌年 春節에 땅의 因
 緣을 만나 다시 움이 트고 썩지 들는 것
 과 같으며 運轉手が 自動車를 運轉 하다가
 破車되면 버리고 새 車를 運轉하게 되는
 것과 같으며 또 이 집에서 살다가 이집이
 무너지면 새 집으로 옮겨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事實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커로 들어 現實을 늘 接觸 하나까 누구나
 疑心 하지 않으나 사람의 生死를 論하는데
 에 이르러서는 「누가 아느냐?」 「모지 않은
 것이나 믿을 수 없다」고 하나나 이는 自
 家矛盾 밖애 아무 것도 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問題를 迷한 우리의 肉眼과 短促한
 生각을 가지고 없다고 斷定함은 어리석은
 일일까 합니까 또는 近來 學界의 말과 같
 이 마음이란 腦細胞의 高等 神經作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假令 여기에 方今 呼吸을
 거둔 屍體가 있다 하면 그는 如前히 各器

官이 俱備하여 있거늘 왜 보지 못하고 들
 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며 一切의 分別을
 못하여 木石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物質로써 原素를 삼아 나툰 一切 萬像은
 그를 能動하게하는 無形의 心作用이 아니면
 能히 活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程度로 問答을 마쳤다 果然 近來
 學界의 論點이 되는 問題인 心이냐? 物이
 냐? 또 心이란 있느냐? 없느냐? 함은 一
 大問題인 것 같다 그러나 本敎의 敎理에 비
 추어 볼 때 明若觀火한 問題인 줄 안다 卽
 宇宙 萬有的 根源인 一圓은 非心 非物이며
 亦心 亦物로서 그 體와 用의 兩面을 가질
 뿐이오 元來 不二인 것이며 萬物은 一圓의
 所現이니 萬物이 同歸一休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마음」이라 이름 하였음에
 不過하나니 이를 證言하자면 佛云「有情 無
 情이 皆有佛性」이라 하였고 儒云「天命之謂
 性」이라 하였으니 이를 미루어 생각 하여
 도 잘 알수 있으리라 믿는다

感謝生活



岸

대저 사람의 심리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은혜(恩惠)를 입었건마는 거기에 대한 감사(感謝)는 느낄 줄 모르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한 일이 있고보면 그만 불평(不平)과 원망(怨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열번 잘하다가 한번만 잘못하면 열번 잘한 것은 다 쓸데 없게 되고 한번 잘못된 것으로써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난리입니다.

제의 소견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무력(武力)으로 싸우는 그 싸움은 참으로 큰 난리가 아니요 사람 사람의 마음 속에 서로 감자할 줄은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품어 반목질서(反目嫉視)하는 이것이 참으로 큰 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난리라 하느냐 하

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난리라 하는 것은 곧 파괴(破壞)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원망 생활을 하고보면 당하는대로 모도가 파괴되는 까닭입니다. 가정에 들어서 원망 생활을 하고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동리에 들어서 원망 생활을 하고보면 동리가 파괴되고 단체에 들어서 원망 생활을 하고보면 단체가 파괴됩니다.

『원망(怨望)』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폭발탄(爆發彈)이올시다. 부모 자녀 사이의 윤기(倫氣)를 끊고 형과 아우의 우애(友愛)를 명글게 하고 남편과 아내의 정(情誼)를 서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인정(人情)을 말살(抹殺)시켜 주는 것이 모도 이 원망이란 무서운 폭발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정(情) 안락(安樂)을 도모하기로 하든지 세계의 평

화를 실현 하기로 한지 반드시 이 원망 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지 아니하고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데에는 반드시 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약 돌려 주는 방법이 없이는 그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들 감사해질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자님께옵서시는 그 방법으로 네가지 은혜를 말씀 하셨습니다 즉 천지는(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 이 네가지 은혜를 조목 조목이 들어 아무런 우치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꼭 은혜 입은 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사은(四恩)만 알고보면 보은 감사(報恩感謝)의 관념이 제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갑(甲)이라 하는 사람이 을(乙)이라 하는 사람에게 저 도 모르는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입어 죽게 된 것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을이 직접 갑에게 은혜 입힌 것을 말하지도 아니

하고 다른 사람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갑은 종시 그것을 모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갑이 을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평범할 것이며 평범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미운 마음까지라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사람의 가르치는 바에 의하여 갑이 곧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인 을을 알때에 그 생각이 과연 어떠한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사에게서 무량한 큰 은혜를 입었전다는 큰 은혜란 원래 입은 줄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저 평범한 생각으로 지냈으며 또 혹은 원망과 불평으로도 대하게 되었을지나 그러다가 다행히 우리 종자님의 가르치심을 힘 입어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친번 깨친 후에는 자연 보은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보은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모로 보더라도 유순하고 선량하며 내심도 항상 평화하고

안락해져 자기의 마음만 편할 뿐 아니라
 대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줍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살아서도 천당
 에서 살다가 죽어지면 더 좋은 극락에 태
 어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원망생활을 하
 는 사랑을 보면 우선 의모로 부더가 험악
 합니다 그 무서운 눈초리 하며 양미간에
 구김살이 제일날이 없을 것이며 제 마음을
 항상 제 스스로 레우고 복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오장(五腸)까지 당하는대로 쭈
 셔 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
 이지마는 죽어지면 생전보다 더 무서운 화
 탄지옥에 떨어져서 무량한 고통 받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이미 종사님의 제자가 된 우리
 일반 대중은 이 네가지 큰 은혜를 쫓겨하
 느겨서 한로 속죄 보는감사의 생활을 천개
 (展開)하여야 할 책무(責務)를 가졌다고 생
 각 합니다

끝

【第一回 總支部 對抗 講演會 演說】

詩 譯

산길

크리스티나 드렐러

이길이 산으로 구불구불 자꾸 올라가나요?
 암 그렁지 맨끝까지

올라가자면 자못 온 종일 걸리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야지

하지만 밤에 묵을 곳이 있을까요?
 어두워 올때 들어가 쉼 집이 있지

너무 캄캄해서 그집이 안 보이나 않을까요?
 그 여관은 노칠 리야 없지

밤에 다른 행객들도 만나게 될까요?
 앞서 간 사람들 있을래지, 그러면

보이자 곧 문을 두드리거나 불러야 할까요?
 문간에 서서 기다리도록 하지 않겠지

먼길에 지친 힘없는 내가 편히 쉬게 될까요?
 애 쓴 그만치 보수를 받을 래지

거기 나와 모든사람들이 누울침대가 있을까요
 아무림 침대는 가는 사람에게 모두 다 있지

【無涯 英詩百選에서】

想 感

入教後 나의 感想

韓 元 培

저는 영광(靈光)일우의 한적한 농촌에서
 하는 짓 없이 훌쩍 인생 四十을 공파해 버
 린 사람으로 날로 늙어 가는 무상을 원망하
 고 무위 탄식하는 지음 천만 다행히 대도
 (大道)회상(會上)에 입학(入叅)의 영광(榮光)
 을 얻어 파반(過般)에 도양지부(道陽支部)를
 집행하여 입교의 절차를 밟아 『元培』란 법
 명을 전해 받들은 초입교도(初入教徒)의 한
 사람입니다 존중한 범명에 경경히 이론을
 더 함은 의담한 일이오나 『元培』란 두 글
 자는 저에게 큰 교훈과 진로의 암시를 주
 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범명에 일호
 회손 함이 없도록 힘을 다 하여 여러 선
 배 제현의 三十四년 동안 이루신 성 스터
 운 공덕탑에 한 산태미의 흙 보탬이라도
 할까 하는 바입니다

생각하던 현하 시대는 사상계의 혼잡으로
 비롯하여 각종의 종교단체가 병기(並起)하여
 정도(正道)의 정체(正體)를 더우잡기 어렵고
 제과에 발달한 인민들은 심신의 정체를 아
 지 못하고 부동하여 있는 이 지음에 오직
 우리 교회는 진리적(眞理的) 신앙(信仰)에
 그 뿌리를 막고 사실적(事實的) 도덕(道德)
 을 포망하여 삼학(三學) 팔조(八條)와 사
 은(四恩) 사요(四要)로써 부동하여 있는 중
 생을 구제하시니 마야(妙)로 지상(地上) 천국
 (天國) 진설을 지향(指向)하고 미계(迷界)
 중생(衆生)을 가르쳐 선행을 쌓게 하심은
 진실로 우리 법사(法師)님의 광명(廣明)하신
 교훈과 선배 제선생님의 사심 없으신 노력
 으로 자인(自認)하옵고 스스로 머리를 숙여
 복배(伏拜) 심축(心祝)을 금후지 못합니다

과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전로
 가 심히 험하고 모연하여 과탄과 고해가
 막막한 이 때 대성 종사주와 법사님이 아
 니셨던들 어찌 우리 교회가 성장(成長) 하
 였으며 우리 교회가 아니셨던들 길 잃은
 양(羊)과 같은 우리가 어찌 구제(救濟)를
 얻겠습니까? 뒤로 비절(悲絶) 참담(慘憺)한
 사회를 일고(一顧)하고 앞으로 무풍(無風)
 평화(平和)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행복감을 심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 생각되는 바는 二十여년전 익산
 (益山) 중앙총부(中央總部) 건축 당시에 다
 행히 일개 인부로 약 일개월여를 경과하는
 동안에 대성 종사주와 재현 선생님의 일
 거수(一舉手) 일투족(一投足)에 감명을 얻은
 바가 많고 이 길이 인생의 정로(正路)임을
 알았으나 허망한 세속에 끌려 그 때부터
 이 공부를 못한 것이 천추에 한이되나 늦
 게나마 다행히도 제삼 공진 속에서 오늘날
 제생의 영광을 보게 됨을 또한 기뻐하 마
 지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종희(郭宗熙)동지의 지시를
 받아 공부해 왔던 바 입교한 三四개월에 인
 근동리로 부러 많은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
 다 이 자리에 그것을 자랑하려 할이 아니
 요 다뭇 마음에 홀로 기뻐하는 낙도의 일
 단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입교하기
 전에는 가정이나 사회나를 물론하고 그저
 남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나의 잘못을 변
 명하며 남을 원망하는 생활을 하였던 결과
 가정과 부락에 화평을 깨트리고 서로서로
 적대시하는 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가 우리 교회에 입참하여 공부를 시작하
 기 후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자료로 삼아
 원망하던 생활을 감사생활로 공부삼아 둘러
 왔더니 점차로 잘 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
 더니 저는 제 공부를 했던마는 제인의 칭
 송을 듣게 되고 따라서 무언중 포교가 되
 며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수련 방법
 을 선망(羨望)하여 입교를 지원하게까지 되
 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함에 이 혼란 극심한

이 다당에 우리를 구제하여 주시는 범사님
과 제현 선생님의 은혜가 진실로 큼이 느껴
지며 그 크으신 덕화의 만분에 일이라도
달고져 애써 공부 하겠음을 이 지상을 통하
여 맹서 하옵고 입교후의 기쁨의 일단을
올리는 바입니다 (郭宗熙 寄稿)

法義問答 (1)

問 우리 教會에서 例會를 보는 意義와 그
順序에 對한 簡單한 解釋을 하여 주십시
오 (은석)

答 例會로 말하면 常時 訓練을 하여 가는
中 每週에 一回씩 定例로 訓練을 받아
常時 工夫의 資料를 삼게 하자는 것이며
그 順序로 말하면 한 宗教儀式으로서 開
會한 後 三歸依唱을 하는 것은 지난 一週日
동안의 俗塵을 벗어나 淸淨한 佛殿에 參
하여 佛、法、僧、三寶에 歸依하여 眞實한
부처님의 弟子가 되겠읍니다 하는 祈願이
요 日常 修行의 要法을 齊誦하는 것은 그를

齊誦함으로써 常時 工夫의 綱領을 놓지 말

자는 뜻이요 出席 點名은 例會를 勸獎하기

爲함이요 敎歌는 教會의 將來를 祝福하는

뜻이며 心告는 過去 一週日 동안 善惡間 지

은 行爲를 一々히 反省하여 懺悔를 올리고

다시 돌아오는 一週日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依支하여 살겠읍니다 하는 祈禱이며 法語

奉讀은 先宗師님의 法訓을 받들어 工夫와

事業을 促進하고 나아가 標準을 얻자는 것

이요 法義 問答은 日常 生活하는데 疑心을

發見하여 解得하자는 것이며 經講이나 講演

을 하는 것은 敎理 訓練을 시켜 事理問에

解悟를 얻어 修行의 方路를 알리기 爲함이

요 四弘誓願은 佛前에 發願하여 부처님의

事業을 함께 이룩하자는 것이며 散會歌는

同志들의 相愛와 오늘 의 가르침을 實踐해

보겠다는 뜻이니 이와 같이 例會 儀式을

通하여 精神을 새로이 하고 工夫心을 獎勵

하여 宗教人의 本分을 놓지 아니하고 生活

에 活用하자는 것이다 (觀照)

金大舉先生의 自問自訓

일기 자못 무더운 7월 어느 날 석양 기자는 우연한 기회로 금산지부에 김대거 선생을 찾게 되었다. 선생은 다난한 해방후 3년을 서울 충부 출장소장으로 고루(苦鬪)하다가

전장을 잃으셔서 현재 그곳에서 오양중인데 매일 채약(採藥)으로 일과를 삼고 계신다

기자가 왕방(住訪)한 때에도 선생은 무명 중의 처자에 고무신을 신고 벌에 걸은 얼골로

약구덩이를 지고 마야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인사를 마치고 무슨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라

고 청했더니 팽긋 웃으실 뿐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 거실(居室)을 둘러보니 말쑥한 책상

하나가 한 구석에 놓였을 뿐 그 위에 한조각의 종이 가 있기에 자상히 드러다보니

『十訓』과 『六問』이란 자문 자훈

기자는 드디어 선생께 졸라 그를 여기에 발표하게 된 바이니 여러분과 함께 수덕(修

德)의 일조(一助)를 삼게 된다면 행심(幸甚)일까 한다

— 錫 記 者 —

『六 問』 (여섯가지 물음)

자하니 영겁다생(永劫多生)에 불퇴전(不退轉) 할만한 신심을 가졌느냐?

一. 네가 진심(信心)이 있는 것 같이 생 二. 네가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생

하나 마음을 허공 (虛空) 眞空 妙有) 과 같이 지키느냐?

三. 네가 무엇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

나 네의 자가 마니보주 (自家摩尼寶珠)

를 얻었느냐?

四. 네가 무슨 능력 (能力) 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생사거래 (生死去來) 를

자유 (自由) 할만한 능력이 있는나?

五. 네가 포부 (抱負) 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하니 지방 일가 (十方一家) 의 살림

을 벌릴만한 역량 (力量) 이 있는나?

六. 네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니 사

방국토 (十方國土) 를 맑힐만한 청정심

(淸淨心) 이 되었느냐?

『十訓』

(열가지 가르침)

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떠맡지 말라

二.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알려려고

애 쓰지 말라

三. 모든 물건을 다 써버리지 말고 항상

애겨 쓰라

四. 일상의 생활은 반분 생활이 좋으니라

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미

루지 말라

六. 큰 복은 남의 전분을 열어 주는

데에 있나니라

七. 큰 힘은 자기를 이기는 데에 있나니라

八. 큰 재주는 남의 재주를 잘 쓰는 데

에 있나니라

九. 내가 높고 싶거든 반드시 남을 먼저

높여 주라

十. 성(誠)경(敬)신(信)은 만사(萬事)성공(成功)의 어머니가 되나니라

美 行

金眞權氏의 信仰

銃彈 앞의 大安心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년

九월 여수(麗水) 사건 당시에 일어난 사실

이요 실화(實話)의 주인공 김진권(金眞權)씨

는 당년 스물 여덟살의 남원지부(南原支部)

관하(南原) 남자 교도로써 지금부터 근 십년전에

대도에 귀의하여 재가 교도로써 공부나 사

업간에 생의를 다 하고 있는 분이다

씨의 직업은 상업(商業)이므로 씨는 다른

지방에 출장이 많았다 씨가 물품 구입차로

이웃에 사는 상인(商人)한분과 같이 남원발

막차로 여수에 도착한 것은 불행히도 반란

사건 발생 전일인 九월 十八일 밤이었다 자

정이 거의 지내서 하차(下車)한 씨는 어느

여관에 들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지친 몸

을 자리에 던졌다

아마 새벽 두시쯤 된 때에 어디선지 산

이 무너지는 듯한 총소리가 요란히 울려온다

황급히 일어나 // 어쩔 연유나 // 교 주인에게

물었으나 // 나도 모르나 잠자로 있으라 // 는

말 뿐 주인도 펴 놀랜 모양이었다

날이 새벽이야 반군이 일어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사람을 많이 상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자칫하면 죽기 쉬우니 가만히 들어

앉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인의 경고도 들

게 되었다

그때 할 수 없이 여관에서 하로를 지내

고 또 하로를 지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태는 더 심하여 저서 들어 앉았기도 위

태하게 되어 그야말로 진퇴가 양난이 되었

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곳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그 여관을 나섰다

음 경계를 거의 벗어났을 때였다 뒤로서

// 거기 있으라 // 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나라난 것은 무장한 반군이였다

씨와 씨의 동맹자는 할 수 없이 그들이

끌고 가는 데로 따라갔다

얼마만에 파출소에 이르렀다

그네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은 경관인데

마치 씨의 의복이 국방색 양복 저고리에

검정 쓰롱을 입었으므로 후형사나 아닌가

추측하고 준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총대로

사정없이 때리며 바른대로 말을 하라는 것

이었다

은 몸을 샅샅히 수색하여 무슨 종거를

잡으려고 하는 판에 옷웃으로 부러 의상기

둥이 적혀 있는 수첩이 나왔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형사가 수단으로 꾸

며 가자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무조건하

고 부르라고 마친다

씨는 바른대로 자기의 직업과 여수 온

목적을 말하였으나 그들은 종시 믿지 아니

하고 내중에는 아주 죄인으로 판결하고 금

품을 압수하는 일방 죽이기로 결정을 하여

버렸다

대장(隊長)인 듯한 사람이 여기서 죽이면

처치하기가 곤란하니 아주 산속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라 하는 것이였다

씨는 그들에게 끌려 죽을 곳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참만에 교외의 어느 조그만한 산록(山

麓)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수백명의 시

체가 여기 저기 흐러져 있고 이곳 저곳에

서는 총소리가 자자하며 지금 죽는 사람

곧 죽을 사람들이 얼이 빠져 서 있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죽

임인데 더구나 二十八제의 피 끓는 청년으

로 어찌 살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지 않겠는

가마는 씨는 한번 죽게 되는 땅에 천지도

지(顛之倒之)하는 것은 부질없이 영생(永生)

의 길만 그르치는 것이 된다는 천일에 들

은 법설과 심지는 원해 요란함도 없고 어

리석음도 없고 끊임도 없진마는 경계를 따

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끊임

음을 없게하는 것으로 씨 자신의 정과 혜

와 계를 세우자는 조목들을 생각하는 한편

일월상지원문(一圓相誓願文)과 밤야심경(般若心經)을 속으로 외와 그 실례는 마음을 평정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얼마 후에 차례가 되어서 저는 형대에

서게 되었다

씨의 가슴 앞에는 총뿌리가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판이다

발사! 한마디에 손교락 한번만 끈덕

하면 그만인 그때인마는 저는 믿는 마음

하나로 마음의 평정을 끝내 보유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발군의 대장은 너무나 태연한 씨의 태도

를 이상히 생각하여 // 어찌하여 죽을 이

마당에서 그렇게 조금도 경동하는 빛이 없

느냐 // 고 물었다

저는 대답하기를 『나는 원불교의 신자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 죽임은 현웃 한번 밋

어떠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할 수 없이 죽

는 땅에 당하지던 마음의 대종이나 놓지

않아야 영생의 길에 도음이 된다』는 교훈

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지금 마음을 가다

듬고 있는 중이라』 하였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는 다 죽게 된

이 마당에서도 조금도 경동하는 바가 없고

태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니 종교에

신념이 특실한 신인일 뿐 아니라 전일에

우리에게 총괄 당할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을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 그대로 들떠

보낸다』 하며 조사시에 물수했던 금품까지

얼마간 반환하여 주었다

그러하여 저는 불행중 다행히도 구사일생

으로 본가에 돌아오게 되었다

꼭 죽었을 줄로 알고 있던 씨를 도로

맞게 된 씨의 가족들의 기쁨도 기쁨이더니

와 저가 사지(死地)를 무난히 통과하게 된

경과 이야기를 들은 이웃 교도들은 이 산

교훈으로 인하여 심심을 일층 도구게 되었

다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갓 고담처럼

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당면

한 일로 놓고 한번 반성해 보자 총뿌리를

가슴앞에 받고 서서도 마음을 쟁결만한 심

려이 썼는가... (監察院 提供)

西洋의 圓相思想

朴 光 田

동양에 있어서의 원상(圓相)의 진리와 역
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소개되어 거의
상식화(常識化)되어 있으나 서양의 원상 사
상(圓相思想)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 하
였으니 필자(筆者)가 참고한 범위 안에서
간단히 소개하여 보려고 합니다

(가) 팔메데스

고대(古代)희랍(希臘)의 자연철학자(自然哲
學者)들은 우리의 주위(周圍)에 있는 삼라
만상의 근본인 질료적(質料的) 본체(本体)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은 우주(宇宙)의 근본은 물(水)이다 혹은
공기(空氣)이다 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다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
기의 의견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팔메데스도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상에 말한 모든 학설(學說)은 만물
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어떠한 물질(物質)
하나가 만물의 근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유무(有無) 변천
(變遷)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참으로 있는 것 (有)이란 유
일(唯一) 불가분(不可分)인 것이며 불생(不
生) 불멸(不滅)인 것이며 불변(不變) 부동
(不動)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은 圓한 두려한 공(球)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고 생각 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으로 있는 것은 무한(無限)한 것이며 자
체(自体)가 자족(自足) 원만(圓滿)한 것이며
결핍(缺乏)된 것이 없으며 또 무시(無始)
무종(無終)한 것이기 때문에 원(圓)으로써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지오티트

이는 중세기(中世紀)의 이태리(伊太利)화가
 (畫家)인데 종교화(宗敎畫)로 유명한 사람이
 며 특히 교회의 벽화(壁畫)를 많이 그린 사
 람입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基督敎) 신앙(神學)
 발달은 최고 절정에 달(達)하여 그 해석이
 실로 심오(深奧)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유력
 한 교회의 신학자상(神學思想)은 신(神)을
 인격적(人格的) 존재(存在)와 같이 생각 하
 여야 하였으며 그 신
 (神)이 이 우주 만물
 을 창조(創造) 하시고
 또 만상(萬像)을 통솔
 하지는 분이라고 믿어
 야 되었읍니다

그러나 신학자(神學
 者)들 가운데에는 신
 (神)의 해석을 불교의
 불성(佛性) 해석과 같이

一 圓 讚

尹 光 彦

히다고 검어지며 검다고 하여지라
 허다가 검어지고 검다가 허어지니
 애답다 검고 흰것은 말 뿐인가 하노라

한 사람이 많았읍니다 신(神)이란 원융자재
 (圓融自在)한 것이며 무주처(無住處)인 것이
 며 무소부재(無所不在)한 것이다 신(神)은
 『一』이기 때문에 이름할 수 없다 그 신
 (神)이야 말로 一체에 존재하면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가장 잘 숨으
 며 가장 잘 나타난다 능변(能變)하면서도
 변화(變化)하지 아니하며 신(新)도 아니며
 구(舊)도 아니며 항상 일하며 항상 쉰다고
 하였읍니다
 그레 지오티트 도 그러한 신(神)의 개념
 (概念)을 가졌던 자 한
 때에 어떠한 사람이
 「당신은 유명한 화가
 이니 신(神)의 상(像)을
 나에게 하나 그려 달
 라」고 하니 그는 묵
 연양구(默然良久)하다가
 일원상(一圓相)을 그려
 그 사람에게 주었읍니
 다 지오티트도 원융자재

(圓融自在)의 상(相)을
그린다면 원상(圓相)밖
에는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 윌리엄·부레크

영국(英國) 근세(近

世)의 유명한 시인(詩

人)인 데 그의 시(詩)

에는 심오한 진리를

들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금실(金絲)의 한끝(一端)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을 그저 공(球)에다 감아 주십시오

그것은 저 예루살렘 벽 속에 세운 천국

(天國)의 문에서

당신을 그 안으로 안내해 드리려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

리를 연결(連結)시키는 선(線)은 원(圓)이라

는 것입니다

짧은들	모자라며	길다고	남을 소나
울은들	소리치며	꿈은들	그저 가리
어지버	시비 장단은	이름	뿐인가 하노라
멀다고	돌아가며	가까운들	손 닿을까
보인들	잡아매며	숨은들	안 보이라
알고도	모르는	것은	그것인가 하노라

탐(人)자이는 원륜(圓輪)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神)과 내가 둘이 아니라 내의

마음이 원상(圓相)만 되어 버리면 내가 곧

신(神)이며 현재 원(圓)이 되지 못한 마음

을 가진 사람은 지옥 생활이나 자기의 마

음이 원(圓)이 되어 버리면 천당(天堂)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各自)가 다 일원상

(一圓相)하나씩을 가졌으니 이것을 회복시켜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끝)

에 의지하려 하며 결
국 그와 합하게까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
데 만일 신(神)과 우
리의 사이가 일직선
(一直線)이라면 영원히
그와 합하지 못할 것
이며 그를 만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神)과 자

原始佛教의 人生觀

徐炳宰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正覺)을 이루시고

이 인간세상의 생활 태면을 살펴 보시고

인제는 고타오 화래이라고 보시었다 절거은

제상을 일부터 무서운 고타나 화래으로 본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할

것이 없는 일에 제상 사람들은 가슴을 때

우고 슬퍼서 못견디어 하나나 이 사람들을 해

구제하기 위하여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

아(諸法無我) 적정열반(寂靜涅槃) 삼법인(三

法印)의 사상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혼들

고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제(四

諦)의 교범으로써 배(舟)를 삼아 이 사바

의 고타에서 열반피안(涅槃彼岸)의 이상계

(理想界)로 구제하여 고타 여이고 낙을

얻게 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본회(本懷)이였

다

그러하여 처음 녹야원(鹿野苑) 설법에서는

어린 아이 달래듯이 혹은 지음을 말하고

혹은 천당과 극락도 말씀하여 권선징악(勸

善懲惡)의 방편으로써 교화의 첫 수단을

배플어 어진 길로 이끌어 드리고 차차 고

상한 진리로써 진미개오(轉迷開悟)의 대도를

열어 보이셨나니 대승수행법인 육바라밀 교

법(六波羅密教法)이 그것이다

그러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무엇인가

?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

은화합(五蘊和合)으로 얽혀 있는 우리의 색

진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흘러 가는 시간

우에서 시시각각으로 변천하여 늙고 병들

어 죽어지는 것이다 백만장자도 돈으로써

죽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요 왕후장상도 권세로써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만법이 변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제행 무상은 자연의 이법(理法)인 것을 애착이 곧은 범부들은 로(老)병(病)사(死)의 불행이 오면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니 이것은 아견 국집(我見局執)이 심하여 제행무상의 도리를 아지 못하는 까닭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란 무엇인가? 나의 온색신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와 수상행식의 사법(四法)이 모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의 바람에 불려서 지·수·화·풍의 사대 색신이 흐려져 갈 때에 자대는 흐려져 짙어지나나 살

(肉)이 나(我)이나? 뼈가 나이나? 뼈도 살도 내가 아닌 것이다 듣고 보고 생각 하고 하던 수 상 행 직 중에 어느 것이 나(我)인 것이냐? 실로 인연으로 모였던 온색신은 인연이 다하면 청말 붓잡을 내가 없는 것이다 인생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물건

은 모다 인연 조각에 의지해서 있는 것이요 실로 독특한 자아(自我)는 없는 것이다 세상 위에 놓인 시계는 영역히 시간을 알리는 소임을 하고 있으나 공인(工人)의 손으로 여러가지 기계를 모아서 조직해 놓는 통일체(統一體)이요 어느 한개의 기계에 시계의 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모일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나 흐러지면 독존불멸(獨存不滅)할 실아(實我)는 없는 것이다 자연의 진리와 인연의 이법으로 만법이 변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되어지기를 믿고 있다가 괴멸(壞滅)의 재변(災變)이 있을 때에 고통을 느끼나니 제법무아의 진리를 아지 못하는 까닭이다

보라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성자필쇠(盛者必衰)는 세상 변천의 진리가 아니냐?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지 않음을 줄로만 생각하고 변하지 않음을 것으로만 믿고 있다 그 부모의 죽음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처자의 숨 지는 데에는 창

자가 끊어지는 듯이 괴롭 토하고 부귀 영
화가 주인을 바꿀 때에는 가슴에 불이 라는
뜻이 안락까위 하나나 이것이 제행무상 제
법무아의 도리를 아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고통이다 이것을 끌러
해탈의 피안으로 구제하려는 교법이 고집멸
도의 사제법문(四諦法門)이다 [연산무아(緣散
無我)는 사후 단멸이 아니고 다시 인연상속
의 분멸의 전리가 있다는 것은 다음 기회
로미룬다]

우리 인간의 현실 생활은 고통과 슬픔 뿐이
다 부귀와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부귀 영화 속에는 비애(悲哀)가 따라 있으
므로 고택로 보아 현실계를 고집(苦集)으로
써 선악인과(善惡因果)의 삼세윤회(三世輪廻)
를 설명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四苦)팔
고(八苦)에 우나니 가난한 살림사리에 집안
일을 하기에 도 괴로우거나 어머니들이 아
들과 딸을 낳기에 그 얼마나 괴로웠던가?
부인들 끼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늙
으면 몸에는 피가 말라가고 눈은 흐려가며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항상 고적과
슬픔에 하란만 생기는 것이 늙은이의 마음
이다 우리는 늙은 조부모의 고적과 슬픔을
위로해 드리자 또는 모든 사람들의 온갖 병
에 고생하는것 여러가지 죽임에 마음이 괴
로운 것 원수와 미운 사람은 피하려 하여
도 가는데 마다 따라 있고 나에게 필요한
재산과 명예 지위는 아무리 구하여도 뜻
대로 되지 않을 때 열(熱)이 나서 병이
되도록 마음이 괴로운 것이며 부모와 형제
친구와 친척은 모여 살았으면 종을 떼며
하나 들씩 갈릴 때마다 마음이 애처로우며
더욱이 사랑하는 애인이나 귀여운 아들을
불행히 죽임의 나라로 보내게 되는 사별(死
別)에서는 애 라는 가슴을 어찌 말로 써
형언할 수 있으랴? 세상사람들은 이 사고
(四苦)팔고 (八苦)에 슬피할 줄은 알면서도
이 고통이 어찌하여서 있는가 하는 원인을
밝혀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고택(苦果)가 분명히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역역히 있는 것을 말씀하셨

나니 그것이 집재(集諦)이다. 집재는 원인
 이란 말이니 악인(惡因)에 악과(惡果)가 있
 고 선인(善因)에 선과(善果)가 있어 이 인
 과법칙으로 만사가 움직여 지는 것이다
 건장한 사람은 위생과 체육에 힘쓴 원인이
 있고 가산이 오족(饒足)한 사람은 근검 치
 부에 노력한 원인이 있어 현실 세상에서
 인과보응이 역연하지마는 미진(未盡)한 것
 은 다음 생(生)으로 넘어가기도 하나니 과
 거에 지은 업인(業因)을 현재(現世)에 받기
 도 하고 현재에 지은 업인을 미래세에 받
 기도 하여 한번 지어 놓은 선악의 과(果)는
 남이 대신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험악한 세상의 고통이 무서움을 거울 삼
 아 고통의 원인이 되는 원수를 맺지 말아
 라 탐심(貪心)진심(嗔心) 치심(痴心)이 몸과
 입을 시켜서 우둔(愚鈍)한 몸은 불의(不義)
 의 악행을 짓고 날카로운 입은 다른 사람
 의 마음에 침(針)질을 하여 단명 빈천 요
 수 질병과 막혀 천대 결시의 원증이 생기
 는 것이니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여 일상

생활을 착하게 하여 가면 곧 현재에는 근심
 될 재화가 없어 지나니 그것이 복(福)이다
 남에게 원수를 맺지 않았으니 제절로 덕
 (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락과
 보는 자작 자수(自作自受)한다는 삼세 인과
 업 윤회설(三世因果業輪廻說)을 인용 하여
 악을 끊고 선을 행해서 섭이 인연(十二
 因緣)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인 애취
 유(愛取有)의 번뇌(煩惱)를 제거 하고 윤회
 의 근본인 무명(無明)을 끊어 없이 하면
 곧 생사해탈의 열반락(涅槃樂)을 얻어 삼계
 화력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시불교
 의 인생관 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主義라도 도모하 그 主義를 汚損시키
 고 事体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勞力이라도 한갓 그 勞力만 虛
 費하는 것이다

—「建國論」에서—

「圓光」의 發刊을 祝함

金 昌 峻

대도(大道)가 창립된지 三十여 歲상에 수만 교도가 雲集(雲集)하여 우리 교회는 많은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큰 功란 功績은 별로 없었다. 하나 일제(日帝)의 압정하에 聖道(聖道)운영상 大대한 지가이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대중사의 성량(聖量)과 여러 선배의 徹天(徹天之誠)과 일반 동지의 聖心(聖心)이 아니었던들 도저히 오늘의 발전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圓光(圓光)」의 전신인 「회보(會報)」간행도 역시 제정(帝政)의 압박으로 인하여 중단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천운(天運)이 순환(循環)하사 無往不復(無往不復)일세. 해방의 종소리에 압축한 靈魂(靈魂)은 雲捲青天(雲捲青天)으로 사라졌고 이제 두렷한 광명이 동천(東天)에 돌아 오르니 가로대 「圓光(圓光)」이라

대범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도덕을 천명(闡明)하는 데에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진이란 무엇인가? 당시 정자 精자의 말씀을 기록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 「圓光」으로 말씀하면 다른 사회의 잡지나 기관지의 유(類)가 아니라 중법사님의 聖訓(聖訓)과 선배들의 金言(金言)王說(王說)과 동지들의 嘉言(嘉言)善行(善行)을 수집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자연 환골제장(換骨洗腸)이 되게 할 우리 교회의 산 경전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간행도 되기 전에 미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허찬(虛讚)에 불과하다 하겠지마는
 「원광」의 전신(前身)인 회보를 참고해 보면 알 일입니다

이 세상은 진보적 시대인지라 「원광」은 과거의 모든 경전에 뒤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쉬운 글짜와 간이한 언구(言句)는 시대에 맞고 인심에 합하여 대중을 화하는데
 과거의 경전보다 우위(優位)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정법홍포(正法弘布)의 만전지책(萬全之策)
 이 될 줄 믿습니다

일반 동지들도 진적부러 이 기관지 발행을 열렬히 희망하였던 것이며 필자(筆者)는 교
 역자(敎役者)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경축해 마지 않는 동시에 장래 증생의 복리를 약속하
 는 「두렛한 희망의 빛」을 상상하며 어서 나오기를 기다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원광」이 간행된 뒤로 우리 동지들은 물론이요 의인 사회 까지라도 독자가 많
 이 생겨서 우리 대도정법(大道正法)의 찬란한 광명이 온 세계에 고루 비쳐 주실 것을
 심축하며 우리는 더욱 증법사님의 성의(聖意)를 받들어 증생 제도에 총력(總力)을 다하여
 이 세파(世波)에 시달린 증생들을 천국(天國)으로 끌어 올리는 거룩한 사명(使命)을 완수
 (完遂)하여야 하겠다고 생각 합니다

(五月三十日)

詩

나의 祈禱

觀 照 禪 人

오오 임이여! 임은 곱어 살피소서

거르려운 세상 업치라 뒤치라 풍랑에 시달리는 이몸을

시원한 동산 훈터운 임의 품에 안아 주소서

낮(個)이 없는 진실(眞實)한 보재기로 꼭꼭 짚 채

하로도 좋고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한년 三백 六十일에 심중이 없을 테니

하늘도 땅도 사람도 아닌 분별(分別)도 시비(是非)도 없는

임의 큰 품에 폭은히 안아 주소서

오오 임이여! 임은 곱어 살피소서

어지려운 인간 시비라 흑백이라 정처없이 허덕이는 이 마음을

교교(皎皎)한 거울바다 바람없는 임의 바다에

두둥실 자유롭게 놀게하여 주소서

하로도 좋고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한년 三백 六十일에 지칠 일이 없을 테니

고요한 물빛에 하늘이라 땅이라 사람이라
영롱히 들어나는 임의 바다에 놀게 하여 주소서

오오 임이여! 임은 굽어 살피소서

목자(牧子) 잃은 어린 양(羊) 멀고 먼 사막의 길에

지칠대로 지친 이 절음이오나

준엄(峻嚴)한 대의 노선(大義路線) 임의 길만 따르오리니

하로도 좋고 한달도 좋고 一년도 좋고

아니 영겁(永劫)이 오히려 부족할 테니

벽천 기팔 종횡(縱橫)으로 필력이게 하여

모든 것의 정체(正體) 뚜렷이 내 세우는

임의 기팔 영원히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오오 임이여! 임은 굽어 살피소서

유구(悠久)한 세월에 진실(眞實)한 마음으로

광막(廣漠)한 천지에 명랑(明朗)한 처사(處事)로

소소(昭々)한 진리 속에 속임 없는 대의(大義)로 살고져

오늘도 이렇게 빌고 내일도 이렇게 빌고

아니 영생(永生)을 이렇게 비오리니

오오 임이여! 임은 굽어 살피소서

詩

그

이

獨

步

덕지 못하지 몸 불편한데

무엇을 가졌기에 그다지 기운은 살았오?

그 뿐인가오

일편(一片)의 토지 없고 일간(一間)의 집도 없오

갖고 싶은 마음조차 전혀 없오

아아 형이여!

내에게 만일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그이 만나라는 생각 하나 뿐이오

그런데 형이여! 그이는 무엇이길래

모든 나(樂) 다 버리고 오직 순종(順從)하라 한다오?

이름이 유한(有限)이니

말일 영원(永遠)되온다면 이름 바쳐 팔겠오

靈山夕陽吟四題

金 勤 修

인생(人生)길 험하더라 전혀 낙관(樂觀) 못 할래라

한 봉우리 넘어서니 물결 높은 바다더라

영산원(靈山院) 석양 해조(海潮)에 무심 못해 하노라

二十七년 피로운 꿈 깨고보니 다행이오

거룩한 종사님 범 늦게 만나 한숨이라

사문(師門)에 이몸을 던졌으니 만년(萬年) 종사 하리라

전쟁이 있는 후니 평화가 행복이오

병(病)을 겪은 후니 건강 더욱 질집도다

수도(修道)에 고난 많으나 낙(樂)도 또한 많으리

이 몸이 어찌하여 못 할 일이 있으리오

철적의 진념(信念)이니 백만군(百萬軍)도 될수없다

나가자 새 출발이다 파자현정(破邪顯正)의 진군(進軍)이다

歌 詞

종사님 성덕송

조 전 권

장하지고 거룩할찌 우리 종사님
 삼계의 대도자요 사생의자부시라
 일체중생 고태에서 구제 하시며
 삼신불의대각성을 원만히갖추시고
 열원대도 가지가지 범을 실고서
 영산승지 불도량에 강생 하시니
 선묘 삼월 이십칠일 그날이로다
 우리종사 유시부더 비범 하시사
 일이든지 이치든지 보시는 대로
 무심간과 하지않고 연구 하셨네
 구제부더 발심하사 십팔년 간을
 하로 감이 변함없이 일관하실때
 첩첩하게 쌓인 의심 풀으시려고
 혹은 산신 혹은 도사 구하셨으나

필경에는 그도역시 실패 하시고
 의심에서 의심만이 주장 되시니
 세상만사 일체분별 돈망한 중에
 일단의심 주장되어 정에 드시사
 하루이를 한해 두해 지내시다가
 병진삼월 이십 육일 이른 새벽에
 날재듯이 잠깨듯이 출정 하시니
 적년간을 의심하든 모든 화두가
 하나둘씩 눈녹듯이 다 풀려지어
 돈오 돈수 생이지지 분명하셨네
 우리종사 대각성분 하신 후로는
 형모 의 광명이 보름달 같고
 누년간에 쌓이었던 모든 명고도
 일시에 물약 자효 완치 되셨네

장하지고 장하지다 우리 종사님

이치로나 일로나 결림이 없고

생로병사 인과보응 결림이 없고

우주만물 허공법계 모든 진리가

일만법의 귀일처로 아시을 적에

시방삼계 한집으로 알으 읍시고

육도사생 한권속이 분명 하였네

거룩하고 장하실짜 우리 종사님

고해중생 병고 중생 전지시려고

근기따라 가지가지 법을 내시니

인생요도 사은사요 구제 법이며

공부요도 삼학팔조 제생 법이며

일상수행 모든 과목 훈편법이며

최초법이 삼십계문 솔성론 이며

영육쌍전 고락실명 참회문 이며

이외에도 염불 좌선 무시선법은

일체중생 근기따라 적절 하게도

유무없이 원만하게 밝히 시었네

우리종사 병고중생 양의 이시요

우리종사 암후계에 일월 이시라

지옥중생 극락으로 인도 하시고

불구자는 원인되게 치료 하시니

무식자는 유식자로 변화가 되고

빈천자는 부귀자로 진급이 되며

타락자는 말심으로 향상을 하고

원망자는 감사생활 보은을 하며

타락자는 자력생활 독립을 하고

이기자는 자라이라 화목을 하니

범부들이 변하여서 불보살 되고

절서없는 이사회도 차서가 열려

태평세계 도덕세계 절로 뉘찌니

우리종사 자비도덕 높고 크도다

기쁘고도 좋을시구 우리 형제여

다행하고도 만행할짜 우리동포여

이런도법 만났을때 정진 하여서

세계생생 인연맺고 성불 합시다

蓬萊精舍를 찾아서

崔 正 均

지창 三十三년 七月 五日 비취 맑
 아름은 맑아왔으나 어제부터 나리는 비는
 그치지물 앓는다 나는 입맛 없는 조반을
 마치고 마치 비 맞기를 즐기거나 하는듯이
 가벼운 행장으로 여관 문을 나섰다

도로의 좌우에 기복(起伏)하는 우중(雨中)
 의 산들은 한폭의 아름다운 동양 산수화의
 풍이 있고 여기 저기 도룡이 샛갯을 쓰고
 김 때는 농간들의 콧노래는 금년의 풍작을
 예고하는듯 흥겹게 들렸다

몸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실상(實相)으로
 실상으로 가까워 지고 오던 비도 어느새 개
 여서 날씨의 화창함이 마치 늦은 가을의
 청량한 일화(日和)를 빌려 온듯 하다
 정오 가까워진 때 몸은 벌써 소금강(小
 金剛)의 층(稱)이 있는 아름다운 산수 속

에 들어 있었다 나는 계속 풍진 다 여이
 고 배운간에 소오하는 사무한선이나 된듯
 사뭇 향홀 하였다

한 절음 두 절음 들어 갈수록 그 절승
 천 산수경(山水景) 좌우로 펼쳐 있는 천룡
 만학은 여여한 진리를 설 하는 것 같고 천
 지 만류로 제 바때 흐르는 청계수(淸溪水)
 는 무상의 진리를 뇌까리는 것 같았다

점점 때가 되었다 도중의 어느 주인 모
 를 산막(山幕)에서 아픈 다리를 쉬며 굵주
 린 배를 위로하고 다시 맑은 시내를 끼고
 양장(羊腸)처럼 구부러진 산길을 올라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실상의 초행임을 고하거나
 하는듯이 노정(路程)을 물었다

헤치고 또 건너서 들이 갈수록 층층 첩
 첩한 기암 괴석은 산으로 산을 쌓고 구비구

비 교리치는 계곡 청수는 물로 물을 꽃아
제 바에 흐르고 있다

건다가 쥐고 쉬어서는 다시 걸어 석양

가까워서야 목적지인 봉래정사(蓬萊精舍)에

당도 차였다 해는 이미 천왕봉상에서 서천

(西天)을 물드러고 있고 들앞의 고목 우에

서는 쓰르라미 소리가 시끄러웠다

쓸쓸히 서있는 이간 초당(二間草堂)이

갓이 바로 우리 종사님께서 지창 당시에

수삼 제자로 더부러 구제대도(救世大道)의

모든 기초를 연마하신 석두암(石頭庵)인 가

하고 생각을 옛으로 달릴때 감회 자못 진

정흥기 어려웠다

수호인(守護人)을 찾아 내의(來意)를 아뢰

고 회(마루)에 걸터앉아 일계(一憩)하였다 정

면의 현관은 고 학명화상(鶴鳴和尚)의 필적

이라 한다 처음이언판 무엇이나 낮이 익은

듯하여 마치 수십년 정 들었던 고가(故家)

에나 찾아 온 느낌이다

그러나 최종하고 설습한 바는 우리의 정

성이 미급한 소치로 초당 지붕은 풀밭아닌

풀밭을 이루었고 풍벽(風壁)에는 그림아닌

이끼가 그림을 이뤘으며 서글과 기둥에는

애꿎은 누수(漏水)의 단청을 이뤘으니 이

어찌 뜻있는 자(者)의 나누를 금할 바이라

? 그러나 이번 내 길이 단순한 순례(巡禮)

의길이 아니라 초당 수리의 업무 개시를

위한 사찰차의 길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무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저녁 상이 나왔다 주린 때에 맛보는 산

가(山家)의 보리밥에는 새로운 무슨 맛이

있는 것 같았다 직후에는 초당 수호인파옛

일 이것일을 이야기 하였다

초당의 황혼은 점점 어두어 들고 인장봉

(印章峰)위 점은 하늘에는 무심한 구름이

은은히 오락 가락 나의 여수(旅愁)를 돌아

준다

나는 호룡봉 밑에서 복명(復命)의 자료로

이 일기를 쓰고 지친 몸을 일찍 자리에

던졌다

傳記

朝鮮高僧傳

(第一回)

靜

觀

序言

偉人들의 傳記가 우리의 修養에 큰 指針

이 되고 社會 進歩에 偉大한 貢獻이 있음

은 여기에 누스히 말할必要를 느끼지 않는

다 英雄과 豪傑의 豐功과 偉業을 追慕하고

哲人과 達士의 思想과 行實을 涉獵하며

明君과 賢相의 鴻猷 深謀를 窮究하고 文人

과 騷客의 藝術과 志氣의 助長에 龜鑑이 되고

人格의 修鍊과 志氣의 助長에 龜鑑이 되고

感銘이 되어서 莊嚴한 生의 바다를 건너

가다가 의롭게 破船된 때 偉大한 힘이 되

고 崇高한 精神的 糧食이 되는 것이다

우리 朝鮮은 文化的 地域으로 悠久한 歷

史와 燦爛한 藝術 文化를 가지고 있다 그

中 佛敎의 朝鮮에 있어서의 文化的 地位는

各 時代를 通하여 政治 經濟 思想等 모든

方面에 있어서 恒時 그 樞要가 되었으니

이 땅의 文化建設에 佛敎人の 貢獻은 實로

큰 것이다 따라서 모든 時代의 高僧 碩德

들은 곧 우리 文化의 乃祖 乃父다 子孫으

로서 祖與父의 思想 事業 乃至 人格을 모

른다면 絶大의 羞恥아닐 수 없을 것이다

元來 우리는 記錄을 尊重할 줄 모르는

百姓이오 自己의 것은 모르고 남의 것만

찾으며 自己의 것은 賤하게 알고 남의 것

만 崇尙하는 百姓이다 그대 우리는 先人들

을 을지계 追慕할만한 史料의 整備도 못되

었거니와 西歐의 文化가 輸入되지 半世紀에

우리는 李舜臣將軍은 모르고 NELSON을 알며

退溪나 栗谷은 모르고 칸트나 다윈을 알며

元曉나 大覺은 모르고 龍樹나 達磨만을 아

는듯한 傾向이 보인다 이것이 어찌 民族을

가지고 歷史를 가진 文化國民의 取할 態度
이라?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燦爛하였던 우리의
옛 文化를 回想하며 그 業績을 남기신

우리의 先輩들을 追慕하고 그들의 人格과
行實을 들추어 後來子孫들로 하여금 우리의

祖與父를 자랑스럽게 바들고 생각 하게 하
여야 할 義務가 있음을 痛感한다

그대 이任에 適하지 못한 줄을 自認하면
社의 委囑도있고 해서 敢然히 붓을 들

어 우리 朝鮮이 낳은 高僧들의 事蹟을 그
年代나 歷史의 記錄보다 차라리 逸史를 主

로 하여 그분들의 片貌라도 더우잡아 보려
하는 바이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祖與父

에 對한 追遠報本の誠이 조금이라도 북돋아
지고 그분들의 人格에 感化를 받아 우리의

修行과 事業에 一助라도 된다하면 筆者의
所望은 다 하는 것이다

(一) 高句麗의 高僧 『阿道和尙』

佛敎가 우리 朝鮮에 끼친 貢獻이 거룩하

었다는 것은 前言하였거니와 佛敎가 朝鮮에
因緣이 맺어진 것은 實로 이 偉大한 傳法

聖者 阿道大和尙의 功德에 말미암은 것이다
무슨 事業이나 世上에 알리지고 貴히 여겨

주는 時代에는 누구나 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世上이 몰라주고 손가락질 하며 나아

가 迫害가甚한 때에 모든 逆境을 물리쳐
고 敢然히 나서서 일하는 것은 至極히 어

려운 일이니 所謂 法을 爲하여는 몸을 잊
으시는 菩薩精神의 所有者가 아니고는 못하

는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은 十方 三界를
遍歷하시다가 가장 迷한 衆生界를 發見하시

면 먼저 그들을 救濟하시려고 나스시는 것
이라 한다 우리의 朝鮮에도 그 차례가 되

었던지 救世의 使者로써 朝鮮 最初의 傳法
師 阿道 大和尙이 나신 것이다

不幸히도 記錄을 尊重하지 않는 나라에
나오신 까닭으로 그 傳記가 渺然하고 다 못

어느 때 이러한 사람이 佛敎를 傳來하였다
는 程度의 記錄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諸

說을 참작하여 그의 小傳을 엮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오늘날 傳記에 나타난 바에 依하면 阿道 和尙은 崎驪한 生을 받았으니 그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서 어머니의 결을 떠나

故國을 등지고 異城萬里 他邦에 들어가 入

山 出家하여 世上을 내 모른다는 뜻이 至心

으로 佛道를 닦았다 그 뒤 몇해의 功을

쌓고 다시 故國에 도라와 어머니를 뵈옵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들어 故國 山川 坊坊

谷谷을 流浪하며 온갖 賤待와 迫害를 받아

가면서도 屈하지 않고 오즉 救世의 理念에

붙타던 靑年 和尙은 이땅에 사는 百姓에게

부처님의 慈悲 法門을 種子 드려 놓고져

그 몸을 받쳤으니 그의 人格과 志氣는 想

像하기에 足하다 할 것이다

그의小傳 阿道和尙은 高句麗人으로 距今 一

八〇〇年頃 때 사람이니 그 어머니는 高道

寧이요 그 아버지는 曹魏人 我掘摩라 正始

年間に 我掘摩가 高句麗에 使臣으로 왔다가

妙齡 處女 高道寧과 偶然한 因緣을 맺게

되었는데 그 뒤 바로 我掘摩는 일이 끝나매

本國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나 그 因緣의 種子 是 씩이 돌아 아버지 없는 아들로서 나온

이가 阿道(我道)였던 것이다

處女와 아들로 世上에 나온 그는 世人의

조笑를 한몸에 받으며 무력무력 자라났다

그리하여 어머니 高道寧은 사랑하는 血肉의

단 하나인 貴여운 아들이언만 마음 놓고

버젓이 아들이라 한마디 불려보지도 못하고

안라까지 길러내어 五六歲가 되매 할수

없이 그만 아들을 어느山家에 맡겨 버렸다

阿道는 一朝에 어머니를 作別하고 山家에서

無依無托한 孤兒와같은 生活을 하게 되었다

於焉 十餘星霜을 지나 十六歲가 되었다

그는 뜻을 定하고 兒以後로 人情에서 追

放 當하여 맺히고 맺쳤던 抑憤을 制어할

수 없어 어머니 나라를 하직하고 異城萬里

아버지의 나라 魏國을 向하여 大志를 품고

竹杖芒鞋로 길을 떠났다

千辛萬苦 꿈에도 보지 못한 他邦의 山川을

떠들어 魏國에 들어가 아버지 我掘摩를 뵈

올고 뜻을 곱하니 그 아버지 我掘摩는 바

로 當時의 名僧 玄彰和尚에게로 引導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로소 중이 되었다
 玄彰은 阿道の 그 그릇됨이 큰 것을 알
 고 至心으로 指導하며 阿道도 또한 怨恨했
 었던 生의 慰安을 얻고져 至心으로 修道하
 였다

그런지 四年에 阿道는 스승에게 나아가
 歸國의 뜻을 告하니 玄彰은 快諾하므로 그
 는 據然히 歸國하기로 定하였다 그렇게 그
 립던 아버지를 뵈었고 불타는 意欲에 至心
 修道하여 定處를 얻은 그는 心獨喜 自負
 하였으나 한편 의로히 문에 기대어 子息의
 居處를 근심하며 萬里他國에 남편 아닌 남
 편을 그리다가 자전할 어머니를 생각하매
 한때가 燥急하였던 것이다

기쁘게 말을 옮겨 萬里길도 짧다는 뜻이
 歸國하여 어머니를 뵈게되니 그 母子의 相
 面은 一大喜悲의 劇的 場面을 이루었을 것
 이다 때는 바로 高句麗 少獸林王 四年이오
 二年前에 秦으로부터 高僧 順道가 나와 省
 門寺에 法會를 열고 있는데 었다

阿道和尚이 돌아오매 高句麗의 君臣들은
 禮遇로써 伊弗蘭寺를 創하여 和尚을 迎接하
 나 이것이 朝鮮의 佛教 傳來와 創寺의 호
 矢가 되었다

和尚은 그 뒤 三十餘星霜을 一朝같이 敎風
 을 大振하니 高句麗의 君臣 上下가 誠心으
 로 敬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志氣 衝天
 의 和尚은 救濟의 손길을 넓히고져 機緣을
 기다려드니 하로는 어머니 高道寧이 말씀하
 지되 「이웃 나라가 佛法을 모르더니 뒤
 三千餘月이 지나면 新羅(鷄林)에 聖王이 나
 와 크게 佛教를 이르게서 그 세울안에 일
 곱 곳에 절리가 나리지리니 하나는 金橋東
 天鏡林(現興輪寺)이요 둘은 三川岐(現永興寺)
 요 셋은 龍南(現黃龍寺)이요 넷은 龍宮北
 (現芬皇寺)이요 다섯째는 沙川尾(現金妙寺)요
 여섯째는 神遊林(現天皇寺)이요 일곱째는 婿
 請田(現曇嚴寺)이니 모두 前부터 伽藍(절)
 터이요 法水가 길이 흐르던 땅이라 네가
 거기 가서 大敎를 種子드리되 마땅히 東쪽
 을 向하여 釋祀를 받들어라 하시었다 (訥祇

王으로부러 세면 一千餘月이요 未추王으로 부
더 그뒤 法興王 十三年 釋敎를 이르키기까
지는 三千餘月이 맞았다)

阿道는 어머니의 이 敎示를 듣고 내가

할일이 무엇일는지 깨닫고 바로 高句麗를 떠

나 鷄林에 나아가 王城 西里에 寓居하니 지

금의 嚴壯寺인데 그때는 新羅 第十九代 訥祇

王이 (或은 未추王) 卽位한 二年 이었다 和尙

은 大闕에 나아가 新羅 君臣에게 敎法 行하

기를 請하니 前日에 보지 못한 것이라 모다

嫌疑하여 迫害하고 죽이려 하는者 까지 있

으므로 續林 (一善郡) 毛禮의 집에 숨어 三

年을 지냈다 (毛禮의 집에 올때에 天地가 振

驚하니 時人들이 僧의 代名詞를 「阿頭三마」

라하니 三마라 하는 것은 鄉言에 僧을

이름이니 沙彌라는 뜻이다)

그때에 成國公主 病이 들었는데 巫醫가

効力이 없으므로 使者를 各處에 보내어 醫

師를 求함에 和尙이 急히 闕內에 들어가서

그 病을 고치니 王이 크게 기뻐하여 그
所願을 물으매 對答하기를

「食道는 百가지에 하나도 求하는 바가 없
고 다만 佛寺를 天鏡林에 創建하여 크게
佛敎를 이르켜 邦家の 福을 누리게 하고저
하나이다」하였다

王이 곧 許諾하고 工事 이르키기를 命하

되 質儉한것을 본 받아 떠들며 엮어 집을

덮고 佛寺를 竣工하여 절 이름을 興輪寺라

하였다 和尙은 여기에 머물러 無量한 法을

說하니 가끔 天花가 땅에 떨어지고 天神이

擁護하였다 한다 이것이 新羅 佛敎의 初轉

法輪 이였었다

그러나 法이 興하기는 그러 쉬운 일이 아

니오 千障 萬壁이 있는 것이다 王이 昇遐할

세 國人들은 때는 왔다 고 앞을 다루어

佛敎 粉碎運動을 展開하고 和尙을 害코저

하는지라 和尙은 드디어 機緣 未熟을 自嘆

하면서 또 다시 사람을 避하여 毛禮의 집

에 들어 土窟을 만들고 몸을 감추니 佛敎

는 다시 衰廢해 버리고 말았다

大志를 가슴에 안고 入國하여 부처님의
福音을 傳하여 안으로 智慧를 닦으고 밖으

로 福田을 열어 福慧 雙全의 淨土佛國을
建設하려고 一片丹心 죽임으로써 나섰으나
機緣이 未熟하여 듣지 않음에 恨담은 士氣

를 그대로 土窟에 잠겨우며 그는 날로 갈
어가는 法悅을 혼자 맛보며 餘年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大人의 가슴에는 空行이 없
는 것이니 뜻은 비록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
래도 그뿐 偉大한 願力이 種子되여 오늘날
의 朝鮮佛教 아나 千有餘載를 찬란히 裝飾
하였던 三國佛敎를 淵源짓게 된 것이니 그功
은 三千里에 充滿하고 그 德은 三千萬에 입
혀졌도다 (我道本碑考)

(墨胡子란 別名이 있으니 이는 梁人이
達摩를 碧眼胡라 하듯이 阿道를 危行하
고 避諱하여 姓名을 말하지 않으므로
世人들이 그 聲名을 墨胡子라 한 것이다)

(一一) 新羅의 名僧 「慧超」

우리 조선文獻에 도모지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新羅 巨僧 慧超의 事蹟이 近者

朝鮮學界에 차차 알리워져 그의 偉名과 業
蹟을 思慕하는 이 많하여 짐을 기뻐하여
마지않는다

慧超의 이름이 높았던것은 바로 그의生存
하였던 八世紀頃의 일이었으니 그가 弱冠
에 故國을 떠나 멀고먼 唐나라에 留學하였
으며 한겨름 더 나아가 法 求하기를 두루
五天竺에 이르렀고 또한 密敎의 初祖이며 譯
經으로 有名한 金剛智와 그의 高弟 不空
두분에게 敎學하였을 뿐더러 스승을 도와 譯
經事業에 從事한 것이 었는지라 이만하여도
그의 이름은 무던히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傳記가 남아있지않고 그의
著書가 끼쳐지지 않아 後人들로 그의 이름
조차 記憶할수 없게하였드니 五十餘年前에
支那 甘肅省 敦煌 千古文籍 中에서 慧超의
印度 紀行文인 往天竺傳의 殘缺本이 나타

나자 近世에 勃興한 西域史의 물도 없는
貴重한 史料로 認定되어 그의 이름은 다시
금 東西學界에 宣傳케 된 것이다 생각하면
그의 一生도 波瀾담은 一生이 었으려니와

死後에 남긴 그의 業績도 또한 崎嶇하다 아
니할 수 없다

그의人物事業 앞에 말한바와 같이 慧超에
있어서는 異常스럽지도 傳記가 끼치지 않
았기때문에 그의 記行文 往天竺國傳이 再現
되지 않았던년 그저 慧超의 音義에 그의
이름과 著書名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을 것
인데 多幸히도 柯羅오敎授의 偶然한 發見으
로 아니 그보다도 敦荒石室 遺書의 꿈같은
出現으로 말미암아 그의 存在가 알리워 진
것이다

그가 新羅人 이었다는 것은 表制集中에
不空三藏에게 受學한弟子六人의 이름이 적혀
어 新羅 慧超라 있었음에서 안것이고 좀더
무슨 材料가 없을까 하여 찾는데 스승을
도와 譯經事業에 從事한 譯經序文에 그事蹟
이 若干 記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要컨대 慧超가 年少한 때부터 佛門에 歸
依하여 그의 信仰과 熱誠은 그로하여금
後을 멀리 唐에 負게하였고 이어 當時 印
度로부터 唐에 와서 密敎를 創始한 名僧

金剛智의 門人으로 있다가 뜻한바 있어 海
路로 印度로 들어가 佛跡의 巡禮를 마치고
險로로 長安에 돌아와 金剛智의 弟子 不空
의 앞에서 受學하는 一方에 譯經事業에 從
事하니 日本의 弘法大師 空海는 慧超 門人
인 慧果의 弟子이다

그는 不幸히 故國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永眠한듯 그의 博學 高德을 故國에
퍼지 못한 것이 우리의 遺憾으로 여기는 바
이나 오늘에 있어서는 그의 紀行文 殘缺本
一卷이 佛敎史보다도 西域史 研究上 世界的
驚異로 되었다 佛國 學者의 손에 再現되어
中國 日本 一流學者의 研究下에 그의 이름
이 들날리게 됨도 運命이라 할가 그의 生
前에 받았던 僧侶로서의 聲價와 今일에 史
料로 堤供한 學者로서의 價値가 그 어떤 것
이 낫을는지 모르겠으나 地下의 그도 娑婆世
界의 流轉無常을 더 한번 웃지 않았을런지
누 이라?

그의小傳 慧超는 外口에 나가서 佛道를 닦
은 名僧이다 그는 聖德王 十八년에 열여섯

살의 少年으로 唐나라에 건너가서 有名한 密敎의 高僧 金剛智의 門下에서 王夫하다가 다시 뜻한바있어 佛敎의 發生地인 印度를 巡禮할 량으로 航海 船便으로 唐나라를 떠나서 坎波자와 마래 半島와 峇이론島를 거쳐 印度 天竺國에 上陸하여 부처님의 나신 聖地와 道를 踏으신곳 처음으로 說法하신곳 열槃하시든곳을 巡禮參拜하고 中印度의 서울 曲女城으로 나가서 踏乘하고 다시 南印度 西印度 北印度를 차례로 거친다음에 히마라야 의 높은山과 世界의 지붕인 파밀高原을 넘 고 西域(五天竺)을 踏乘한다음 聖德王 二 十六年 十一月에 唐나라에 돌아왔다

交通의 至便한 오늘에도 支那를 거쳐 印度를 踏어 가기가 힘든 노릇인데 하물며 기전도 없고 기차도 없는 險한 길을 千 二百年前에 十六歲의 少年으로 長安萬里길을 踏破한 것도 壯한 일이어늘 다시 行裝을 꾸려서 더욱 아득히 먼 印度의 旅程을 떠 났다는 것은 목숨을 애끼지 않고 오로지 眞理를 探究하고 道를 求하기에 忠實하고도

적적한 그 氣像을 엿볼 수 있어 感歎하지 않을수 없다 一葉片舟로 南海萬里의 險한 波濤를 건느고 竹杖芒鞋로 과밀의 높은 고개를 넘어선 구도 恒河에 새벽바람 일고 雪山에 저녁노을 비끼면 꿈속에 아물거리는 고국의 모습이 하도 아득해서 하염없는 感想에 잠기었을 것이다

그의詩에 支那求道僧의 죽음을 읊드니

「憶想哀情切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 지어 이 悲君願不隨 」「그대의 높은뜻이 꿈이란 말이 熟知鄉國路 」「아득한 고국길을 누가 알런가 空見白雲歸 」「구름만 부질없이 오고 가도다」

또 胡密의 王城에서 吐蕃으로 가는 唐나라 使臣을 만나서 읊으니

「君恨西蕃遠 」「그대여 서번길이 멀다고 말라 余嗟東路長 」「동으로 고국만터 아득하도다 平生不捫淚 」「평생에 우름이란 내물랐더니 今日灑千行 」「오늘은 흐르나니 눈물 이로다」

이와같은 偉大한 求道聖者를 先人으로 되 신 우리의 자랑이 크다 할찌나 곱게 되셔 보지 못한 恨도 큰바가 있자오니 임이어 앞이 제시되면 새나라 새法과 이는이마당에 還現하소서 (續)

雪 山 童 子

圓 峰 學 人

옛날 설산(雪山)에 설산동자(雪山童子)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구도자(求
 道者)였습니다. 부처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고행이라도 달게 닦았으며 중생술 이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회생을 돌아보지 아
 니하였읍니다.

그는 제상의 모든 일에 청통하고 인생의
 안팎을 뜯어지게 보아서 나고 죽는 괴로움
 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령
 여기에 어떤 귀한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도(道)를 구하는 때 방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것에는 눈도 안
 떠보고 즐곳 도만 구하기에 전심하는 근기
 있었읍니다. 도를 위하여서는 재산도 처자도
 수레도 노복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수족
 까지라도 기쁘게 버릴 수 있는 큰 작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 제상의 모든 사람들
 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오직 하나 큰 발원(發願)
 이 대도를 구하여 깨침을 얻어서 일체 중
 생과 함께 참다운 낙지(樂地)에 소유했고
 싶은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수도인의 심경을 늘 살
 피고 있다는 제석천(帝釋天)이란 천신은 이
 설산동자의 도를 구하는 그 결심을 대단히
 장하게는 알지마는 그 정도가 얼마나 견고
 한가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
 어서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죽 이제상에 한때 어떠한 인연으로 보타
 심(菩提心)을 발한 사람은 상당히 많으나
 증생은 항심(恒心)이 없어서 마치 물 가운

옛날이 불의 오동함을 따라 이르 저리 홀
 들리는 모양으로 조금만 어찌운 경계를 당
 하여도 그만 그 마음이 퇴전(退轉)해서 다
 시중생심(衆生心)으로 돌아와 버리는 수가
 많다 비유해 말하자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어 굳게 몸을 단속하고 아주 용감
 스럽게 싸움터에 나갔다가도 경작 강적과
 마주 싸우게 되면 문듯 두려운 마음을 내
 어 비겁하게 물러나 버리는 것과 같이 세
 간의 모든 사람들도 얼른 보기에 곳곳하여
 음전 수 없는 굳은 보리심을 발했는가 하
 면 어느새 생사고뇌(生死苦惱)의 마군이 현
 해 그만 그 마음을 굽혀버리고 마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설산동자도 지금은 아주
 굳은 마음으로 난행 고행을 달게 계속하고
 청정한 도행(道行)에 정진하고 있지마는 그
 가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그 도심(道
 心)을 굽히지 않고 매겨질것인가? 참으로
 그가 목숨이라도 받쳐서 부처의 도를 지켜
 나갈것인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니 한
 번 그 도심을 시험하여 보아야겠다 금(金)

은 태워보고 두드려 보고 잘아보는 제가지
 시험을 치르거나야 비로소 그 진위를 판정
 할 수 있는것이다 이제 설산동자도 한번
 여러모로 그 도심의 진위를 시험 하여보리
 라 이렇게 제석천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은 보기에도 무서운 살인귀
 나찰(殺人鬼 羅刹)의 모양으로 몸을 나투어
 천상에서 설산동자의 수행하는 처소 근처에
 내려 왔읍니다 그리하여 본래부터 마음에
 공포없고 변재(辯才)당할 자 없다는 제석천
 은 칭아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파거제상 부
 처님이 설하신 계종의 반분을 소리 높여
 설하는 것이 었읍니다
 모든 것(行)은 덧없어라(諸行無常)
 죽고 나는 법(法)이로다(是生滅法)
 제석천은 반계를 설하고나서 그 큰 눈을
 굴러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읍니다
 그때 동자는 암자 속에서 참선을 하는
 중이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듯한 계종 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비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이 나서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둔 밤중에 깊은 산중에서 길동무를 잃은 의로운 나그네가 공포 속에 길동무를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기쁨보다도 장병에 시달린 병자가 명의를 만나게 된 기쁨보다도 망망한 바다에 빠진 사람이 뜻아니한 구조선을 만나게 된 기쁨보다도 천감절 만감절 큰것이었습니다

고행자 설산 동자는 자리를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하여 큰 소리로 웨쳤습니다

「지금의 반계는 누가 설한것이나?」

자방을 두루 둘러 보았으나 무절계 생진 나찰하나밖에는 계종을 설했듯한 아무의 모양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대체 누가 그러한 좋은 법문을 이런 산

중에서 설한 것일까? 온 세상이 다 생사

계에 깊이 잠이들어 있는데 누가 홀로 눈

을 떠서 그런 계종을 설한것일까? 나에게

위 없는 도미(道昧)를 맛 보게 한 이는

누구인고? 누가 반계를 설하여 나의 심기(心地)에 광명을 던지고 마음속의 연꽃을 피게 하였는고? 반계를 설하신 그 어떤 보살이 산중에 있기는 있으련마는 눈을 씻고 보아야 아무도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

설산 동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방을 헤맸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절계 생진 나찰 하나 밖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를 아니 하였읍니다

(반계의 글은 서 나찰이 설한것일까? 아

니 아니 저런 무서운 열굴을 한 나찰이

그와 같은 희유(希有)한 계종을 어찌 설할

수 있으리? 불 가운데 연꽃이 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본적 그렇지만도 않을 듯

하였읍니다

(내가 앉아서 물라보는 것이지 설

은 저 나찰이 설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찰

이라고 파거제에 부처님 처소에 참례하여

그런 계종을 듣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어쩔던 한번 물어 보리라 하여 나찰을 향하여 소리 쳤읍니다

「대사(大士)」

아까의 반계는 그대가 설

한 것인가? 그대는 어느 곳에서 과거불의

설하신 그런 존중한 계종을 들었는가? 그

반계의 의지(義旨)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를 일관하여 체불제존의 정도(正道)일것 같

다 일체 세간의 무량한 중생은 항상 집전

(執見)의 그물에 덮여서 일생을 외도(外道)

의 범중에 보내고 아직 일찌기 그와 같은

거룩한 계종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대체 대

사는 어데서 그와 같은 계종을 들었는가?

나찰은 두리운 입술을 열어 무서운 소리로

「대바라문(大婆羅門)」

문지도 말라! 나

는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꼬아 죽겠다 밤

낮으로 먹을 것을 찾고 돌아 다녀도 밥이

손에 들지를 않아 애라고 있다 지금의 그

소리는 주림과 갈증에 보내끼어 정신이 혼

드되어 나온 빈 소리였다 보다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다」하고 뜻 잡아 떼었읍니다

그러나 반계를 설한 아가 아 나찰임에

틀림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가만이 있

을 동자는 아니었읍니다

「아니 대사! 정말로 그 계종은 대사가

설한 것인가? 대사! 남은 반계를 마자

설해 줄 수 없는가? 만일 나를 위하여 아

가의 계종을 끝까지 들려 주면 나는 몸이

맞도록 대사의 제자가 되어 대사의 시중을

들어 드리겠노라 아가의 반계 만으로는 자

구(字句)도 불완전 하고 뜻도 다 하지 못

하였다 그 좋은 계종을 설하다 말고 그

뒤를 설하지 않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제상의 재시(財施)라면 한정이 있으나 법시

(法施)의 이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반계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

고 고마워 전할 수가 없다 다음의 반계를

마자 설해 달라 몸이 맞도록 제자가 되어

대사를 섬길 것이니 어서 좀 반계를 설해 달라」

동자의 청은 간절했읍니다

그러나 나찰

의 태도는 냉냉했읍니다

「대바라문! 그대의 맑은 지혜에는 놀라

운마가 있다. 그러나 자기 일만 생각해서는 못쓰는 법이다. 나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주리고 목 말라서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대사! 대사의 먹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사람을 무섭게 할 뿐이니까……」

「사람을 무섭게 할 뿐이라고 하나 여기에는 나 밖에 아무도 없지 아니한가? 나는 아무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행자(行者)다. 무엇을 먹는가?」

「어서 말해보라. 그대의 먹을 것을 구해 주리라!」

「그러면 말하겠다. 실은 내의 먹는 것은 사람의 고기 뿐이요. 내의 마시는 것은 사람의 생피(生血) 뿐이다. 나는 크게 박덕한 자 이어서 다만 사람의 피와 고기만을 마시고 먹고 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덕이 많아서 모든 천신의 수호를 받고 있는 고로 내의 힘으로는 잡아 먹을 수가 없다. 그때 오늘날도 종일 먹을 것을 찾았지만 아직 손에 들지 못할 뿐이다. 주림과 갈증에 이렇게

괴로워 하고 있는 중이다.」
나찰은 무섭게 매공은 표정을 하였읍니다. 동자는 말 하였읍니다.

「그러나 대사! 그러면 어떻게 다음 판계를 설해달라. 다음의 판계를 듣게 되면 나는 이 몸뚱이를 그대에게 공양 하리라.

내가 비록 천수(天壽)를 다한다 하더라도 죽어 버리면 설산의 호탕이나 솔개의 밤이 되고 말 몸뚱이 내 이제 도를 구하기 위하여 굳지 못한 몸(不堅身)을 버리어 굳은 몸(堅身)과 바꾸려 하노라.」

「대바라문! 그대는 겨우 여덟짜 계승을 듣기 위하여 그대의 육신을 버리겠다고 하는가? 그러나 그러다고 하지마는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아 대사! 그대는 어리석기도 하다. 개왓장을 버려 금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 개왓장을 애끼겠는가? 나는 생자신(生死身)을 버려 금장신(金剛身)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만일 내의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훌륭한 증인을 세워 보이리라. 대범천

왕(六臂天王) 제석천(帝釋天) 및 사천왕(四天王)이 잘 이 일을 증명해 주실 것이오

천안(天眼)을 갖춘 제불 보살과 증생을 이익케 하는十方諸佛이 이 일을

잘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런가? 진정 그 몸을 버려서라도 남은 계종을 든것다면 내-배가 대단히 고프

지마는 남은 반계를 설하여 주리라」

나찰의 말을 듣고 설산동자는 몸에 입은 누피(鹿皮)를 벗어 나찰을 위하여 법좌(法座)

를 만들고 합장하고 꽃이 앉아 일심으로 반계를 청하였읍니다

나찰은 자리에 앉아 엄숙히 반계를 설하였읍니다

죽고 남이 멸(滅)해 버린 (生滅爲已)

제멸 그제 나(樂) 이로다 (寂滅爲樂)

소리는 하늘에까지 사무치는듯 하였읍니다

반계를 설하고 나서 나찰은 약속대로 동자의 육체를 요구 하였읍니다

「그대는 이미 계종을 갖추어 들었다 그

대의 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자 약속대로 나에게 몸뚱이를 보시하라」

설산동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바이므로 육신의 공양에는 아무 주저할 바가 없었으

나 자기가 이대로 죽는다면 뒷세상 사람들이에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나 이

계종을 적어 두어 길이 후세에 전하리라 생각하고 그 근방의 바위거나 땅이거나 나무거

나를 물론하고 손에 다치는 대로 이 계종을 기록해 놓고 몸을 던져 죽기 위하여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읍니다

「나는 이 육신을 버려 계종의 공덕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는 겨우 十六차

에 불과하나 이것은 삼세를 일관하여 으뜸가는 제불의 가르치심이다 나는 이 가르치

심 때문에 죽는다 이욕이나 명예나 재산때문에 또는 진륜성왕이나 제석천이나 대법천

왕이 되고 싶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기하는 바는 오직 일체 증생을 이익케 하려는 한 생각 뿐으로 나는 지금 이 몸을

버리는 것이다」

철산 동자는 나찰과의 약속에 의하여 반
계의 값으로 높은 나무에서 땅바닥을 향하
여 몸을 던졌읍니다

그러나 동자의 옥체가 아직 땅위에 떨어
지기 전에 나찰은 제석천의 본 모양으로
돌아와 공중에서 동자의 몸을 고이 받아
평지에 사뿐 내려 놓았읍니다

제석천을 비롯하여 천상에서 내려온 모든
천인(天人)들은 그의 발 아래 꿀어 업디어
그를 찬미하였읍니다

『아아 거룩한 보살』 무명의 어둠가운대
대법의 햇빛을 들고 무량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의에 아무 다른 구하는 파도 없는
이 보살을 우리가 부러 괴롭게 한 것도 필
경은 부처의 대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조록 이 인연을 잊지 마시고 미래에 대
원장각(大圓正覺)을 이루시거든 남던저 제도
하여 주옵소서』

발계를 위하여 몸을 버린 고행자 철산동
자는 인행시(因行時)의 서가세존(釋加世尊)이

있나 합니 다

(열반경 제十三)

法義問答 (2)

問 「다른 사람을 시켜 악(惡)을 범(犯)
하게 하면 그 시킨 사람이 죄보(罪
報)를 받습니까? 직접(直接) 행한
사람이 받습니까? — 공 전 —

答 악(惡)을 행하되 다른 사람을 시켜
대행(代行)하면 그 시킨 사람이나 직
접(直接) 행한 사람이나 다 죄보(罪報)
를 받게 되나니 그 인과보응(因果報
應) 되는 이치는 본래 자기가 지은
파와 같이 간접(間接)으로 대행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받게 되고 직접(直
接)으로 지은 자는 직접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 조 절 —

大宗師逸史

(第一回)

金

亨

悟

大宗師逸史를 쓰며

우리 종사님의 도덕 회상이 창설된지 우

금 三十四년에 몇 만년을 지나도 오히려

거역에 사리지지 아니할 기쁜 일 서러운

일이 그 번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는

이미 우리 창건사(創建史)에 대강 기록 되

어 있다

이 천추에 빛날 우리의 역사! 글짜마다

광명이 나고 책장마다 향내가 나는 피땀

의 기록을 어찌 한 말씀인물 잊으며 한가

지 일이라도 실전(失傳)을 할 바이라?

그런데 이 자리에 천천의 한이 되는 바

는 천만 몽의로 六년 전에 우리 종사님을

영결하고 그에 전후하여 선배 어른들 중에

서도 고인(故人)되신 어른이 차차 많아 지

시어 적수공권(赤手空拳) 고군 약졸(孤軍弱

卒)로 세상 사람들의 조소(嘲笑)와 악평

(惡評) 시기(猜忌) 가운데에서 대 회상 창

립의 금자탑을 쌓을리실 때 말로 다 하지

못할 고생과 지금의 우리의 사랑 계교(思

量 計較)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不

可思議)의 실화(實話)가 많이 있었다는데

세월을 잡아 놓은듯이 엄빙덩빙하다가 구부

구부 지낸 그 사실을 날날이 다시 듣지

못하게 된 일이다

덕목 초창 당시에 천제하신 가사(歌詞)

시(詩) 주문(呪文) 등이 많았으며 그중에도

『법의대전(法義大全)』이란 세상의 데 비서

(大秘書)가 있었다는데 그도 영영 얻어 보

지 못하게 된것이 천추의 여한이다

그러면 그 불가사의의 사실들을 우리의

창건사에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또 당시 천

저 문자들을 전부 불살라 버린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는 대종사의 명령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니 즉 불가사의의 신통 변화는 세계 대권을 잡으시는 성인에게는 응당 나타나는 것이나 이는 생현의 말변지사(末邊之事)라 이로써 중생을 가르치는 정법을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을 참고로 들어는 들찌언정 후세에 유전할 경전에 쓰거나 정사(正史)에 기록할 바가 아니라 하여 일부러 기록도 못하게 하시고 모두를 소화(燒火)시키신 것이다

이제 필자(筆者)가 전일에 종자님과 九인 선배(제위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편편(片片))을 엮어서 이 지상에 계속 발표하고자 하는 바 종자님의 행적인만치 반드시 듣고 보아서 잊지는 아니할 바이나 정전 같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종자님 생존지에 서대원(徐大圓)선생이 당시 『희보』를 통하여 『종화록(宗化錄)』이란 제목 아래 대종사 친저 문장 가사 등과 일화들을 수집 발표하려 하였으나 그때 시

국 관계도 있고 해서 가사 몇편만 발표하는 데에 그치고 나머지는 후기로 미루었는데 이런 기회에 계속 집필(執筆)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불귀(不歸)의 객이 되어 버리고 재주 없는 필자가 본지(本誌) 편집부(編輯部)의 청을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히 감당하게 되니 감개가 자못 무량하다

어떻던 초초(草草)한 본고(本稿)를 발표함으로써 인하여 우리 종자님을 더욱 사모하는 데에 조고마한 도움이자라도 된다면 필자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인 것이다

(三四·七·二〇)

一. 진달이 다녀 오신 이야기

대종사께서 열 여덟살 되시던 해부터 열 아홉살 되시던 첫 여름까지 一년 반 동안 을 귀영바위 [대종사 탄생지부근]란 곳에 거주하셨었다

이때도 역시 유시(幼時)부터 삼중에 소원하시던 우주 대자연의 전리며 인간의 생

(生) 노(老) 병(病) 사(死)와 선(善) 악(惡) 귀(貴) 천(賤)으로 변화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항상 우며중에 계시었다

이렇게 남몰래 크게 구하지는 마가 있어 시어 세속사리에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산(家産)은 나날이 탕진되어 모든 생계(生計)가 다 끊어지고 호구(糊口)하실 길조차 막연하게 되었으니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위기기장(慰其飢腸)』이란 말 그대로 산에 올라 풀잎을 뜯고 들에 나려 나물을 캐서 한그릇씩의 나물죽으로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설 사이 없는 걱정과 우수(憂愁)속에서 그날 그날을 지내시게 되었다

이런 고초중에 싸이신 사모(師母)님께서는 때로 츄마 끈을 졸라매시며 낫을 들고 산에 오르실 때나 바구니를 끼고 들로 나가실 때는 눈물과 한숨이 앞을 가리게 되었으니 대중사의 그 용모 기품 성격 어느 점이나 세상 사람에게 못하지 아니하신 인격이 폐인이라는 명명을 쓰고 단자를 잊고 뱀만 바라시고 앉으신 일이며 누구에게 부

럽지 않던 살림이 다 파산되어 가운(家運)이 험하게 되는 일을 생각하실 때에는 눈앞이 아득할 뿐이었다

어느날이었다 비가 나리기 시작하여 거둬서 흘을 계속하니 그나마 죽고릴 계획조차 없어져서 별 도리 없이 나물만 삶아서 한줌씩 잡수시고 때를 지내셨으니 한 두때 아니고三四일을 지내실 때에 마음이 오직 하셨으랴? 물 아니 뎨 망이 다술 리 없고 밥 아니 먹은 배가 부물 리 없었다 더구나 헐어져 가는 지붕이 하늘이 내다 보이는 천정에서는 비물이 재어 땅바닥은 뜰이 되어 분별없이 앉으신 총사님의 무릎 아래가 그득이 고여 있으니 땅에는 적은 못 부일에는 큰 못 온 집이 물 뿐이라 바가지로 물을 끌어 내고 절대로 땅을 흠쳐내고 하는 동안에 비는 차차 개었다 설사 앞으로 며칠을 더 굶더라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아니할 것이나 다행히 비가 개었으니 구명하기 위하여 사모님께서 바구니를 찾아 들고 산비탈로 들 언덕으로

나물을 캐러 나가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르지 아니한 때를 二、

三日 동안 더 굶으셨고 절상가상으로 방한
이 물방죽이 되어 열하여 잠을 편히 자보

지지 못하였으니 그 기운이 열마나 쇠약하
셨으랴 말 언덕에서 친세 탄식을 하시며

나물을 캐시다가 사모님은 그만 정신을 잃
고 쓰러지셨던 것이다

진흙 위에 쓰러진 그대로 의식(意識)을

잃고 있으신지 한참만에 마침 근동 차는

어떤 분이 지내다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서 달려들어 곧 일어 앉히고 정신을 차리

시도록 한 후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양식

두피 대금을 내어놓고 어서 쌀을 팔아다가

구급하기를 청하였다

미안하고 감사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절에 돌아오셔서 다시 나물을 삶는 동안에

어연간 해가 저물어 졌다

일각이 잠추와도 같이 괴로운 그날 밤을

지내며 어서 날이 새기를 고대 하셨으니

어려 날 만에 쌀밥을 지어 종사님께 올리

게 될 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생각 하

셨기 때문이었다 이른날 이른 아침 사모

님은 자루를 찾아 들고 재 넘어 동리 양

식 있는 절을 찾아 바쁜 절음을 치셨다

굶주린 사람은 길가에 쓰러지는 것이 누

가 정해 놓은 일인지 동구에 당도하자 들

연히 정신을 잃고 또 길가에 쓰러지셨다

이른 아침 길가에서 어떤 부인이 쓰러

진 것을 본 동리 사람들은 달려 와서 구

원을 하고 인정있는 말로 연유를 물었다

그들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 양식까지 손수

구하여 드리어 집에 돌아가시도록 하여 주

었다

양식을 손에 들고 바쁜 절음을 쳐서 집

에 돌아 오셔서 밥을 지어 종사님께 올리

고 밥맛 본지 오래 된 사모님도 미처럼

한번 주린 때를 위로 하셨다

그러나 사모님은 다시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 그것은 그 이른날 아침에 전지상을

올리고 사모님은 일찍 밤에 나가셨다가 해

가 저물어서 돌아와보니 전지를 비벼 놓고

웃가락을 드신제 종사님은 그대로 앉아 계
 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복제를 몸에 입으
 신 그대로 침식을 구망하고 벽만 바라고
 앉으셨으니 그때의 사모님 속 쓰린 곡절
 을 어찌 이루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때는 꽃피고 새 우는 양춘 가절 등
 다습고 때 부른 사람들은 긴 긴 봄 날을
 오히려 짧다고 하는데 사모님에게는 봄날 해
 긴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도리켜 생각컨대 초로 인생 세계도 제
 각각 하늘이 나리신 행운이 있거늘 대도덕
 회상의 짝이 트려는 첫 보금자리에 잠잔의
 공도의 시련일 따름이지 어찌 천지의 도음
 이 없으며 앞길이 명량하지 아니하라? 당
 시의 눈물 한숨 고등은 오늘에는 모두가
 증생을 위한 자비로운 영산 춘풍이 되고
 성스러운 우담바라(優曇婆羅)가 되고 만 것
 이 아닌가?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이 가고 五월 초
 순이 되었다

근방 사람들은 종사님께서 적연부동하고
 앉으신 뜻을 알 리가 없었다 구리하여 말
 하되 「아무는 부모 슬하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내다가 즐지에 가친상(家親喪)을 만
 난 후로 남의 빛을 많이 진 데다가 가산
 처리며 식구들을 다려고 살아 나갈 길이
 막연하므로 심화병이 생겨서 저렇게 폐인이
 되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라」고 수근
 거렸다

그렇게 말이 돌아다니므로 근방 친구들은
 후 찾아와서 말하되 「그렇게 심화만 고라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새로 정신을 차려 어
 느 방면으로든지 활동을 하면 다시 활
 기 생기는 것이니 장사라도 하게 되면 자
 금이라도 주선하여 드리겠다」고 권하는 것
 이었다

어느날은 이인명(李仁明 後의(二山)씨라는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되 「내가 이번에 진
 달이(落月島)로 장사를 갈양으로 선편까지
 다 말하여 놓았으니 이번에 가지 장사차
 로 떠나심이 어떠하냐」고 묻어 권할 뿐

아니라 옆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다 같이 권하였다

이 말씀을 들으신 종사님께서서는 어떠한 생각을 일으켰던지 권하는 바를 옳게 여기시어 가권들과 상의하신 끝에 사모님과 두 분이 섬으로 장사를 가지기로 작정한지 후 인명씨의 수선과 다른 친구들의 힘으로 몇

백량의 자금(資金)을 준비하여 살림도 구약간을 가지고 법성포(法聖浦)로 나가셔서 일엽 편주(一葉片舟)에 몸을 싣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섬나라로 향하여 그날 석양에 무적지인 진다리에 무사히 도착하셨다

종사님께서서는 전자에 섬에 오신 일이 없으시기때문에 한 사람도 지면이 없었으나 인명씨의 주선으로 집도 빌리고 장사할 설비를 다 하게 되셨다 육지와 바다가 생활하는 길이 달라서 걱정되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 이심 후한 섬 사람들의 동정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장사는 해산물의 도매와 산매등이며 선인들에게 식량 등 물자를 대어주고 어물로

교환하여 방매하는 것이었는데 모하게도 종사님에게서 물자를 빌려가지고 바다로 나간 장사 배는 하나도 위험한 일이 없고 설패하는 일이 없이 돈을 가득 벌여 싣고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달고 무사히 돌아 오는지라 아무 근심 없이 금고 속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종사님께서서는 정진을 소창하시기 위하여 인명씨와 더불어 어대동으로 산보하시던 차에 돌연 어떠한 노인을 만나셨다 그 노인은 한참동안이나 종사님을 우뚝어 보더니 『여보십시오』하고 칭하여 말을 내

어 주소 성명까지 물은 후에는 자기의 등에 한번 얹혀 달라고 청하므로 종사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나고 이유를 물으신지 그 노인은 말하기를 『내가 소시로부터 헌털이 나도록 수십년 동안에 사람도 많이 구경하고 남의 상(相)도 많이 보았으나 당신과 같은 체격

이나 싯광이나 위이며 얼굴에 결함이 없이 귀엽게 될 인물은 처음 보았으므로 마음에 하도 감탄하여 인연(因緣)을 맺자고 업어드

리고저 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며 다시 말하되 「부(富)도 권(權)에 제열이 오귀(貴)도 인간에 으뜸이라 기필코 그 덕조 창생을 전지겠으니 그功德이 우주에 차고 그 이름이 사해(四海)에 덮이겠도다 옛날 서가(여태가) 三十二상 八十종호가 구족하시다 하였으나 이는 인간에 없는 일이어늘 오늘 당신의 열술을 뵈오니 비록 인간에 나왔으나 천상(天上) 자람이로다」 하며 손을 이끌고 원두막까지 찾아가서 후대하며 칭송하였다

종사님의 장자는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석달이 열론 지내고 八월 초승이 되었다 천우 진조하여 순서있게 벌어진 돈은 차북 차북 귀 속에 수 천량이 쌓이었으니 이만하면 남의 빛도 다 갚고 가정사가 좀 쾌여 질만 할 뿐더러 겸하여 추석 명절이 다쳐오니 집에는 아버지의 영위(靈位)를 피시고 백발이 성성한진 어머니께서 갖은 고생을 잊으시고 손을 꼽아가며 기다리실 것을 생각 하실때 마음이 펴 조금하여졌다

종사님께서 유시(幼時)로 부터 하시는 행적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시고 아버지도 모르게 밀림이 다북 차고 맹수가 회행하는 잠말재 깊은 산봉(山峯) 험한길을 제물까지 장만해서 가게 해주시고는 밤 오래까지 후은 닭이 울고 날이 썰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문을 열어 놓고 기다려 주시던 그 어머니 어찌 명절을 밖에서 지내라?

종사님께서 이런 여러가지 일을 생각하실 때 추석전에 하루 속히 집에 돌아가야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벌려 놓으신 모든 일을 깨끗이 청산하신 후 八월 열하룻날 오전에 배 한척을 불러서 제간을 싣고 사모님과 같이 진달이를 떠나시게 되었다 선창까지 나와서 섭섭히 작별을 하여 주는 인정많은 심자람들에게 뒤에 단날 기약도 없이 떠나 오시는 것이 섭섭하기 짝이 없었다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진달이를 뒤에 두고 쏜살 같이 달려 온다

앞으로 九十九峯 굴수산(九岫山)이 멀리
서 뱃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 산 밑이 법성
포(法聖浦)요 조금 돌아 들어 성탄지(聖
誕地) 구호동(九虎洞)이다
매는 사공이 찾다리를 물리는대로 철석철
적 물쌀을 치며 굴수산 편을 향하여 달려
온다

인지(人知)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
은 천지의 변화이겠지마는 이렇게도 돌연한
날씨의 변화가 있을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명주바다같이 잔잔하고 순풍이
슬슬 불던 바다에는 난데없는 폭풍이 일어
나더니 그 기세가 점점 세어지자 돛대는
꺾일듯 하고 매는 나무 접시 처럼 기웃둥
거린다 성난 바다는 물결인지 섬인지를 분
간할 수 없게하고 이 물결 저 파도가 서로
부다쳐 깨어지며 안개가 되어 지척을 분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람은 더욱 더욱 오란해진다 칫다리도 부
러지고 풍석도 다 찢어졌으며 돛은 끊어져
서 이편 물 저편 물을 치고 뱃장 안에는

물이 퍼 들어 와서 앞으로 얼마 안되어
매는 파선이 되고 사람은 모조리 수중 고
혼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모님은 물장을 쳐서고 혼도하여 뱃장안
에 쓰러지고 선인들은 「이제는 여영 죽
었다」고 서로 붓잡고 통곡한다

산덤이 같은 파도 하나가 뱃머리에 부더
치자 매는 물결을 따라 크게 한번 기웃둥
하더니 뱃장안에 실었던 짐들이 우루루 한
편으로 물려진다

이제는 배 안 사람 전부가 정신을 놓았
다 우는 소리까지도 줄어졌다 사공도 아주
단념한듯이 한편에서 영영 울고 있다

이런 오란중에서도 오직 태연히 본 자태
에 그대로 앉았는분은 종사님이였다

자태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보자 종
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사공
옆으로 두벅 두벅 걸어가셨다

종사님은 사공의 따귀를 두세번 붙이나
게 치지며 호명하셨다

「이놈아!! 너까지 정신을 놓고 울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숫아 날 궁기가 있고 땅이 갈라져도 살
도리가 있나니라 정신을 놓으면 살 놓도
죽는다 죽게 된 때에 정신까지 잃을게 무
어란 말이냐?

사공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울음을 근쳤
다 호통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좀
수습하였다

종사님께서도 허공을 향하여 빌으셨다

「천지 심명이여!!! 무슨 죄로 우리를 몰살
하려 하시는가? 아마 내 죄로 인하여 무
죄한 선인까지 죽게 되는가 보나 나에게
만 벌을 내리고 무죄한 저 사람들을 어서
살려 주사이다」

큰소리로二三차를 얻거되 외치시니 그
음성이 온 바다에 진동하는듯 하였다

이 호통소리가 끝나자 마자 거친 바람은
그치고 물결도 따라 잔잔해 지는듯 하더니
순식간에 바로 건너편 바다 위에 물결인듯
도 싶고 섬인듯도 싶은 가마귀 머리 만한
까만 무엇이 나타났다

종사님께서도 사공을 불러 손을 들어 가
리키시며 물으셨다

「저편으로 짐개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나?
섬이나? 물결이나?」

「저기 저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섬 같습
니다」

「그것이 섬이면 무슨 섬일고?」
「아마도 작도(鵲島)라는 섬 같습니다」

「그 섬에 가면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사는 섬이나?」

「네 네!!! 거기만 가면 살 것입니다」
종사님께서는 또 잠깐 묵연히 서 계시

다가 더욱 높은 소리로 호통을 하신다
「참으로 그 섬이 작도냐?」

「네!」
「참으로 작도냐?」

「네!」
「참으로 작도?」

「네!」
「분명히 작도?」

「네!」

이렇게 세번 웨치시는 순간에 그야말로
잡시간에 때는 물결 잔잔한 심 앞에 나타
났으니 놀랍고도 신기하게 이심 이 땅
가마귀 머리만 하게 보이는 작도(鵲島)
있던 것이다

선인들은 이제는 살았다고 숨을 내 쉰
다 그러나 어느 영문으로 살게 될지를 짐
작하지 못해서 살기는 살았으나 마음은 무
서워 떨리고 의심은 컸다

때는 차차 선창 가로 밀려 들었다
섬 사람들은 언제나 큰 풍파가 있을 때에
는 높은 곳에 올라가 마다 형편을 살피고
선창 가에 모여서 후 밀려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힘껏 구조하는 양풍이 있으므로 이
날도 모두 선창에 나와 있었는데 난데 없
이 풍석선 한척이 그런과도 속에서 쏜살
같이 떠 밀려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래
서 허둥지둥 서로 급한 소리를 하며 줄을
던져 주었다

一 동은 무사히 선창에 나렸다
섬 사람들은 초면이지만 서로 팔가하며

신기하게 여긴다

『배 열장도 다 부서지고 저 끝 하여
가지고 어떻게 석늘 잡았을까? 인력은 아
니오 천우신조한 일이다 아마도 이 배에
하늘 아는 양반이 타셨나보네』

이렇게 화제까지가 되었다

선인들은 생각할수록 살아 온 것이 신기
하였으나 생각이 미치지 않고 콧말 하늘
아는 양반이 타셔서 우리가 살았나보다하는
생각 뿐이었다

종사남께서는 동리에 들어가셔서 주인집을
정하고 괴로하진 몸과 마음을 쉬셨다

주인집에서는 말끝마다 『하늘 아는 양반』
이라 들먹거리며 『우리가 뗏목을 해변에
살지마는 처음 이런 일을 본다』 하며 각
별한 대접을 한다

그날 밤을 지내고 이른 날이다
바람도 물결도 누가 감춘것처럼 조용히
개이고 여파가 잔잔한 수평선 위로 다른 배
들은 유유히 왕래한다

종사남께서는 집안 일을 생각할 때 일각

이 삼추 같아서 바로 떠나고 싶으셨으나
배를 수선하기로 하면 적어도 六일은 걸리
리라 한다

그리하여 하로 이를 취시키고나니 열 나흘
날이 되었다

명절은 섬에도 오는 것이다 이집 저집서
는 띄치는 소리가 흥겹다

이튿날이 추석 날이다 섬사람들은 서로
종자님을 피서다가 위로하며 후한 대접을
하였다

열엿셋날 까지에 배 수선이 끝났다

그래서 다시 배에 올라 작도를 출발하시
게 된 것은 열 이셋날 오전이었다

섬 사람들은 별루를 뿌리며 환송하였다

하늘은 웃는 듯이 맑고 따뜻하였으며 바다
는 잠든 듯이 조용하여 그야말로 백로는바
다를 비껴 가고 잔잔한 바다 물은 하늘과
한폭이 었다

사공의 「어기여차」 빛 소리에 배는 섬을

벗어났다

살 같이 달리는 배는 오후에 무사히 뱃

성포 (法聖浦) 를 지나 길룡리 선두에 도착
하였다

종자남께서는 섬중 소득으로 남의 빛을
깨끗이 청산할 수가 있게 되어 집안 일
은 얼마간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하리오 마음 깊어 잠겨지신숙
원을 이루시지 못하셨으니…… 다시 세상일

은 몽중으로 보내시고 분별없는 정에 잠기
시어 「폐인」 이라는 허물을 또 쓰시고 백
만 바라지고 여전히 앉으시었다

귀영바위 집은 그 해 동안에 그만 쓰러
지고 말았다

(계속)

莫謂慈容難得見

不離祇園大道場

教界消息

(1) 總部狀況

一. **中央總部**에서는 去六月 十一日 當年度

第一回 院議會를 開催하고 諸般 議件을

討議한 바 立法委員會를 組織하여 新定

敎憲과 內規의 訓練 及 實行을 積極 推

進하기로 하고 經濟委員會를 組織하여 去

年度 繰越 借金の 整理며 當年度 維持

對策을 專門研究하여 이 難局을 打開하기

로 하였는데 滿場의 熱意는 자못 든든한

마가 있었다

二. **聖業奉贊會**에서는 敎議會以後 如前히

趙錫錫 金恩峰兩氏의 指揮아래 聖塔工事を

進行中이며 今七月十九日에는 同會 在總部

幹部 會議를 열고 各 地方 委員의 活動

에 對한 激勵 及 感謝文을 送達하기로

可決한바 앞으로 大宗師 聖業 奉贊 事業

의 進展이 크지 期待된다

三. **産業部**는 近 四五年間 여러가지 事情

으로他部에 所屬되어 있던바 過般 院議會

를 通하여 該 部의 獨立을 可決하고 構

內 倉庫 一棟을 食堂으로 改修하고 田畓

一萬數千坪의 耕地로써 新任 趙錫錫産業部長

의 指導아래 十餘名의 部員이 團欒한 가운

대 熱烈한 鬪志로써 靈肉双全과 晝耕夜禪

을 實踐하고 있으니 아직 그存在가 微弱

하고 基礎가 不實하나 不遠한 將來에 産

業部의 面目이 圓佛敎의 異彩를 자랑해

주리라 고 믿는다

四. **唯一學林**에서는 既知하시는 바와 같이

去 四月 七日에 專門部 三十八人 中等部

五十一人의 第一回 卒業生을 내어 方今

各 地方에서 活躍하게 하는 中이며 다시

四月 二十六日에 第二回生을 募集한바 專門

部 五十二名 特選部 十五名 中等部 五十

一名으로 總數가 百十八名이었으며 五月一

日 開學한 以來 여러先生님의 敎鞭아래 修

業하다가 今七月十六日에 第一期夏休를 하

여 各各 歸省하였다. 그런데 本學林의 維持는 오직 紀念費와 佛恩米로써 하고 있는 바 그 동안은 入學金과 授業料와 前年度 繰越 殘金으로써 維持하였으나 돌아오는 學期부터는 各 地方에서 每月 送金을 迅速히 하여 주시지 않으면 維持策이 甚히 困難하겠으나 學林을 사랑 하지는 地方 同志 여러분의 特別한 後援을 바라 마지않는다 한다

(2) 地方狀況

一. 南原、雲峰 兩支部에서는 여름의 선물로

부채 扇, 장수를 하여 該 支部 建築後 殘餘借金を 清算하였다 하며

二. 草梁支部에서는 近 百萬圓을 드려 食堂建築을 始作한 바 着工 二個月 餘에 近近 落成式을 行하리라 하며

三. 開城、春川兩地方은 비록 三八境界線이

나 부처님에 歸依하는 믿음으로써 安心하

고 敎務에 全力한다 하며

四. 新泰仁支部에서는 講堂 新築을 앞두고

五. 裡里支部에서는 地方同志의 企待가 큰

高等禪院 建築이 近間 着工 豫定으로 請

負業者들의 來往이 頻繁하다 하며

六. 新興敎堂으로 光州三禮는 漸次 進步

되고있다 하며

七. 全州支部에서는 金剛青年會全州支會에서

月刊 機關誌를 發行하는데 벌써 第三號가

刊行되었다 하며 또 今月二十五일부터 八

月二十五일까지 아침 坐禪 한 時間과 저녁

念佛 하時間씩 簡易禪을 開催하였는데

參席人員은 平均五十餘名에 達한다 한다

八. 外에도 日增 月加하는 敎徒 形便에

依하여 群山, 東山, 오樹, 咸悅, 金堤 등 사동

(全北) 旺村, 連峰(全南) 등의 七個所에서는

準支所資格으로 地方 特志 敎徒의 誠意로

써 그 管轄地方 敎務의 出張으로 例會를

보고 있다 한다

(뒤에 仔細한 地方報告를 接하는 데로 誌上에 掲載하겠자오니 以此 諒知하소서)

(3) 教金收納狀況 (自五月一日至七月十五日)

地方別	科目			
	教金	義務 資金	紀念費	佛恩米
益山	一、四三〇	八〇〇	二八、三八〇	三、八〇〇
裨里	六一〇	四〇〇		三、三〇〇
申	一、三〇〇	二、八〇〇	二〇、〇〇〇	四、〇〇〇
開城	六九〇			二〇、六九〇
春川	五六〇	四〇〇		九六〇
慶南	八四〇			八四〇
草梁	二、一四〇	一、〇〇〇	二、七〇〇	三、一四〇
進永	九九〇	八〇〇	六、〇〇〇	四、四九〇
靈山	四五〇	四〇〇	五、〇〇〇	一一、八五〇
新興	一、一九〇			一、一九〇
道陽	二、五六〇		四、七三〇	七、二九〇
全州	三、一三〇	五、六〇〇	一、五〇〇〇	四一、六〇〇
三禮	二、五〇〇	四〇〇		二、九〇〇
井邑	七九〇	四〇〇	一、五〇〇	六、九六五
新泰仁	一、一六〇	四〇〇	四、二七五	七、〇六〇
金山	六六〇	一、二〇〇	八、〇〇〇	二、八三〇
計				

地方別	科目			
	教金	義務 資金	紀念費	佛恩米
琴坪	二、七六〇	一、二〇〇		
馬靈	二八〇	一、〇〇〇	七、五〇〇	
館村	一、〇一〇			
佐浦	二二〇		一、〇〇〇	
龍新	一、五三〇		一、五〇〇	
承富	五三〇	二〇〇	一、九七〇	二、一五〇
花海	一、四〇〇	五、〇〇〇	六、〇〇〇	一、〇三〇
南原	五二〇		一五、〇〇〇	
雲峰	六〇			
光州	四六〇	四〇〇	二、〇〇〇	
任實	六五〇			
院坪	二〇〇			
南仙	一〇〇	二〇〇		
龍岩	三三〇	二、〇〇〇	二、〇〇〇	三、一九〇
好谷	五三〇	八〇〇	八、五〇〇	
各地	一、二一〇	六〇〇		
堂里			九、五〇〇	
合計	三、七二〇	三、〇〇〇	一三四、五八〇	五三、五一五
計				

(分月五)

(4)

教徒加減狀況

五月一日至六月一日

教務部

法名	別	地方別	法名	別	地方別	法名	別	地方別	法名	別	地方別
金明喆	女	牛邑	劉載恩	女	琴坪	姜連益	女	琴坪	姜有信	男	琴坪
鄭智仁華	女	牛邑	韓有源	女		姜正修華	女		崔善奎	男	
趙南鎮	男		丁大英	女		金開龍華	女		李春益	男	
安東國	男		朴哲園	女		盧萬善行	女		李亨源	男	
趙萬修園	女	南仙	朴普順	女		廉仁德	女		崔慶修	男	
金景愛	女	琴坪	禹長悟	女		李善玉	女		朴聖泰	男	
朴主圓	女		許有圓	女		車景安	女		崔性浩	男	
都正來	女		崔大善華	女		金聚善華	女		崔慶浩	男	
魯一住華	女		李亨老	女		金三淑	女		李春植	男	
朴惠仁華	女		金寬淑	女		張普德華	女		梁慶瑞	男	
金明順華	女		李英淑	女		韓昇仁華	女		梁碩柱	男	
命甲仁華	女		沈同源華	女		崔耳順華	女		金大連	男	
宋一順	女		吳宗南	女		崔順同	女		金奉錫	男	
李春意行	女		高峻英	女		李龍瑞	男		張萬仁	男	
申金蓮華	女		沈道泉	女		李宗哲	男		韓順德	女	
鄭德真華	女		李明淑	女		朴貴錫	女		崔英碩	女	任實
梁妙德華	女		張南善華	女		姜大字	女		朴聖潤	女	

趙孟基	成慧調	具陽熙	李貞烈	金精進行	方圓等華	孫光潤	梁浩天	全良薰	宣大然	金秉善	林陽春	朴才連	崔銀淑	崔英玉	朴善玉	丁大蓮	金妙淑	朴啓善	法名
男	〃	〃	〃	女	女	男	〃	〃	女	男	〃	〃	〃	〃	〃	〃	〃	女	別男女
〃	〃	〃	〃	〃	進永	〃	〃	〃	新泰仁	〃	〃	裡	〃	〃	〃	〃	光州	任實	地方別
李良園	姜敬眞華	宋敬淑	宋亨順	金聖仁	姜養眞華	朴聖根	金性學	李泰仁	金歲善	申大願行	鞠世親華	金敬守	安安定華	安正斗	李漢祚	金現秀	殷大淳	崔楊春	法名
〃	〃	〃	〃	〃	〃	女	〃	〃	男	〃	〃	〃	女	〃	〃	男	〃	女	別男女
〃	〃	〃	〃	〃	〃	道陽	〃	〃	〃	〃	〃	〃	益山	〃	〃	馬靈	〃	草梁	地方別
金琪英	金善中行	金大廳	崔聖地華	李永春	姜大玉	姜龍善	姜大連	姜璟旭	姜璟振	姜宇現	姜俊泰	姜基宣	姜敬中	姜善圭	姜順德	金道殷	丁慶眞玉	梁道安	法名
〃	〃	〃	〃	女	〃	〃	〃	〃	〃	〃	〃	〃	男	〃	〃	〃	〃	女	別男女
〃	〃	〃	〃	〃	長城	〃	〃	〃	〃	〃	〃	〃	〃	〃	〃	〃	〃	道陽	地方別
黃永順	金萬玉	金正夏	金秉仁	金萬基	柳萬現	朴壯根	嚴正國	金性鎮	金性局	金大洙	吳慶碩	車潤哲	李知安	姜愛仁	李良老華	田淨法華	韓宗翼	金蓮淑	法名
〃	〃	〃	〃	〃	〃	〃	〃	〃	〃	男	〃	〃	〃	〃	〃	〃	〃	女	別男女
〃	〃	〃	〃	〃	〃	〃	〃	〃	〃	全州	〃	〃	〃	〃	龍新	龍溪	高興	群山	地方別

裴性智圓	趙錦安	金理現華	柳一性圓	金善德	崔玄順	李奉賢	金淨德行	梁慧性華	朴永信華	金行善	朴願生華	鄭順局	梁禹性華	金解脫性	金智靈華	韓修仁	蘇慶仁	李英道	金德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女	男	
〃	〃	〃	〃	〃	〃	〃	三禮	〃	〃	〃	〃	〃	〃	〃	〃	〃	〃	〃	〃	全州

卓永達	李弘運	丁光淵	林道益	丁法中	朴道現	朴俊翼	金道亨	張載賢	朴性智	柳敬允	金憲植	金大勳	尹慧善	朴明宗	鄭大恩	鄭理恩	河一清	朴賢百行	金清源
-----	-----	-----	-----	-----	-----	-----	-----	-----	-----	-----	-----	-----	-----	-----	-----	-----	-----	------	-----

〃	〃	〃	男	女	〃	〃	男	女	〃	〃	〃	〃	〃	〃	男	〃	〃	〃	女	
〃	〃	〃	〃	靈光	〃	院坪	新川	龍岩	〃	〃	〃	〃	〃	〃	〃	〃	〃	〃	〃	三禮

梁景珍	李貞珠	全靈地華	崔義性	朴正天	金弘淵	廉性遠	安世鍾	趙浩景	金聖田	林光信	李福善	姜智連	柳永安	(六月分)	康元局	李明烈	金大興	郭瑞雲	金德信
-----	-----	------	-----	-----	-----	-----	-----	-----	-----	-----	-----	-----	-----	-------	-----	-----	-----	-----	-----

〃	〃	女	〃	〃	〃	〃	〃	〃	男	〃	〃	女	男	〃	〃	〃	〃	〃	男	
〃	〃	〃	〃	〃	〃	全州	〃	群山	南原	〃	〃	〃	井邑	〃	〃	〃	〃	〃	〃	靈光

權妙玄	權泰現	權正勳	權文錫	申仲玄	朴大振	韓公信	徐明洙	金慧中	鄭萬中	會雲植	許廣濟行	文明星華	金萬性華	金普仁華	權永德華	府永秀	河永運	李正中華	陳雲性
-----	-----	-----	-----	-----	-----	-----	-----	-----	-----	-----	------	------	------	------	------	-----	-----	------	-----

〃	〃	〃	女	〃	〃	〃	〃	〃	男	〃	〃	〃	〃	〃	女	〃	男	〃	女
〃	〃	〃	〃	〃	〃	〃	〃	〃	館村	〃	〃	〃	〃	〃	〃	〃	花海	〃	全州

權雲仙	嚴一知圖	金敬天	田光國	周道根	周英全	鄭正根	吳憲淑	金大錫	白靈山玉	金圓光華	安淨蓮	李全寬	金正信	鄭昶元	申春薰	姜相日	徐中止華	朴良元
女	女	女	女	男	女	男	女	男	女	女	女	女	男	男	男	女	女	女
館村	〃	〃	慶南	〃	〃	新泰仁	〃	新川	〃	〃	〃	〃	〃	草梁	〃	〃	〃	〃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朴興龍	鄭綠安	崔精一行	金双全華	姜修玉	金天命	金養精行	申慧允	姜允達	柳震碩	金永修	金清全	晉明全	李慧哲	李正根	李永哲	溫春洙	姜柱全	申允全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男	女	女	女	女	男	女	女	女	女
草梁	〃	〃	〃	〃	〃	〃	〃	〃	承富	〃	任實	〃	〃	龍新	〃	〃	〃	〃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金壽根	崔慧光華	金聖中	才世鳴	崔泰中	劉良性	吳知全	崔萬玉	金圓明	崔長壽華	金慧性華	金寶玉	韓德峻	朴真全	鄭好全	丁報願華	李性仁	金聖音	李道信
女	女	男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男
龍新	〃	琴坪	〃	〃	〃	〃	〃	〃	〃	〃	〃	〃	〃	〃	〃	〃	〃	好谷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韓法中	尹昌薰	黃壯雲	金寶鏡華	朴聖真	金潤玉	丁進源	李明峻	尹貞煥	趙賢煥	申春成	李壽成華	申智庸	張庸源	刁餘一行	申省春	曹玄達	總計	二
男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女	九	八
好谷	〃	〃	〃	〃	〃	〃	〃	〃	〃	〃	〃	〃	〃	〃	〃	〃	〃	〃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法名

九八(增)

二十三日	成載致	成了哲 親父	二十三日	金聖天華	趙準官 斗母	三日	朴氏	金義天 斗母
〃	金順成華	金正覺 祖母	二十三日	金琉璃華	朴快詰 母	四日	徐主吏	申法是華 親母
〃	文正奎	文喜宗 親父	二十三日	文潤福	張清淨華 子	五日	康津金氏	金重鑣 祖父
〃	柳盡業	權程 親母	二十四日	韓相贊	韓戒愛 父	六日	申性昌	梁德新華 夫
十四日	李大光華	朴海山 妻	〃	孫錫昌	蘇貴仁華 子	〃	徐中安	徐共甫 親父
〃	金南巡	尹鍾滿 母	〃	金德千	李奉禮 夫	〃	海州吳氏	〃 前母
〃	白緣球	尹貴局 子婦	二十五日	呂奎伊	李正慧 養女	七日	李滿勳	李玄妙華 夫
〃	金正學	鄭圭仁 夫君	二十六日	李明賢	成義徵 母	八日	白奎宇	金大成華 夫
十五日	崔學龍	吳貴安 舅叔	二十七日	吳振永	金仁現 夫	九日	鄭淳中	鄭安心行 親父
〃	柳正植	柳重順華 親父	二十八日	尹永明	尹貴局 伯父	〃	李光	金統制華 母
〃	李渡洪	李守榮 親父	〃	李鍾玉	李性寅 子	〃	鄭慈京	鄭亨善 父
十六日	李振範	李空田 祖父	〃	朴正任	吳大心 母	〃	李甲禮	朱泰洙 女
〃	宋正恩華	沈慶燮 妻	〃	鄭碩現	崔尙玉 母	〃	趙氏	金仁現 母
十七日	丁奎東	丁盛熟 親父	二十九日	鄭田玉	溫惠恩華 兄	十日	朴智陽	朴泰中 父
〃	崔奎德	崔普光華 弟	三十日	鄭在洪	李元理華 子	〃	李氏	李守榮堂 叔父
十八日	金氏	金普燮 弟	〃	鄭氏	〃 夫	〃	朴氏	〃 堂叔母
〃	柳常烈	金富業 夫	〃	盧以璉	盧清信行 祖父	〃	李載文	李空田 叔父
二十一日	朴周鉉	鄭亨燮 斗父	五月一日	林茂心	林基善 弟	〃	朴潤相	李青春 夫
二十二日	崔貴南	高基權 女	二日	小禮	林昌仁 從同婿	十一日	金泰亨	金道一 父

紀念日 紀念人 紀念主斗 二關係

十二日	李在明	朴四時華 夫
〃	黃德理華	鄭三島華 母
十四日	韓白元	韓貴智華 父
〃	○先生	〃 母
〃	金載洙	朴如俊 夫
〃	吳秉麟	吳昌建 祖父
十五日	趙聖保	趙大盡 父
〃	河氏	〃 母
十六日	洪南陽	崔圓覺 母
十七日	金一基	金恩徹 父
十八日	梁滿空華	李二淳 母
〃	朴玄媛	高基權 母
〃	吳尙祐	林南石 女
十九日	宋達憲	宋奉煥 養父
〃	朴氏	李守榮 母
二十一日	南玄愛行	金用成 祖母
二十二日	金永愛	姜修練 女
二十三日	沃野張氏	金三禪華 母
二十五日	李永七	鄭完一 夫
〃	曹君七	蘇貴宗華 夫
二十六日	黃華旭	黃大一華 父
三十八日	裴永禮	李道秀 前妻

三十日	姜善道行	金士文 母
六月一日	吳仁善	金水精華 父
〃	朴宗真	朴明性 親父
二日	金聖慶	金性明華 父
〃	張大玉	朴元淑 前母
三日	金淨彥	金眞寶華 孫子
〃	李相敦	金共鳴行 子
六日	潘月鏡華	鄭世月 母
〃	柳榮蒙	柳義貞 祖父
七日	韓氏	〃 祖母
〃	姜願顯華	鄭振局 母
八日	李貞淑	李熙信 叔母
〃	金生根	裴普信行 子
九日	金武宗	金基練 父
〃	秋乃有	秋現庵 父
十二日	鄭在蓮	李時日 母
〃	吳弘範	吳富哲 父
十五日	金俊湖	〃 母
〃	趙奎鎮	鄭成培 子
〃	李玉蓮華	秋道一華 母
二十九日	韓戊午	李慈恩華 子
五月一日	吳洪烈	李大善 夫

六日	朴光峻	方信英 夫
九日	柳仁淑	朴昌基 伯母
〃	李東安	李光悟 父
十一日	黃寶根華	〃 人
〃	李滿黜	李玄妙華 夫
七日	朴基元	權貴男 子
十五日	許德善	朴正福 女
〃	朴時主	朴高源 夫
八日	金瑞田	千德運 夫
〃	金在洙	金天真行 弟
十日	李長期行	柳三田 母
九日	柳忠現	〃 父
〃	李正基行	金石政 祖母
十一日	陳正滿玉	崔道華 母
〃	柳承欽	柳義貞 父
十九日	韓清媛	〃 母
〃	吳奉植	金必然 母
二十五日	李聖默	朴泰一 母
二十七日	金修在	郭永泰 夫
七月十五日	〃	〃

【以上百三十八位】

世紀의 中間報告

美國 M.I.T.의 討論會

「世紀의 中間報告」라는 題目으로

M.I.T.는 今年 二月에 科學者의

討論會를 開催하였다

M.I.T.는 有名한 「마사쥬셋 工

科 學院」으로 八十餘年の 歷史를

가진 美國 一流의 工科 大學이

다

「世紀의 中間報告」란 一九四八年

即 二十世紀의 前半이 거의 다

간기 때에 科學의 發達과 人類

運命의 因果를 鑑定 報告하는

것이 다

科學은 人類文化의 發達과 그

幸福 增進에 寄與한바도 크지마는

殺人武器의 發達은 또한 人類에게

많은 慘禍를 가져온 것도 事實이

더 잘못하면 앞으로 人類 自滅을

促進할 수 있게 생겼다

여러 學者의 討論을 綜合하여

보면 文明의 自殺을 救授하는 方

法으로 세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自然의 征服으로부터 마음

의 征服으로 方向을 틀러 國際的

協同을 實踐하여야 한다는 科學의

否定論이요

또 하나는 科學者가 盲目的 技術

家단 되지 말고 그 發明의 用途를

操縱하는 精神力을 發揮하여야 한

다는 科學의 雙刀論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科學의 無

制限 發達은 結局 戰爭을 否定하

게 되리라는 科學 萬能論이었다

結局 무슨 問題나 마찬가지로

어느 한편으로만 偏重하여서는 안

될 것이요 세가지 態度를 適當히

調和시킴으로써만 人類의 課題는

解決 될적 하다

編輯室

編輯餘談

三伏 盛炎 ↓ 되 무덥습니다
初伏날 시작할 절 中伏을 하로

기난 오늘에야 校正을 끝마치고
겨우 한숨 내쉬게 되었읍니다

× 예초 計劃은 的 豪筆로 읽는데
정작 되어 놓고보니 不滿한 點이

× 많고 校正도 縮密을 期한다고 한
것이 疎漏가 적잖은 듯 합니다

× 그러나 『去其華 就其實』이 여러
본의 本誌를 對하는 態度일 줄

× 아오며 號가 거듭됨에 따라 漸々
모든 것이 完全히 되어 갈 것을

× 自信하오니 그를 期待하고 諒解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從來 會報의 使用 活字를 쓰지
않고 또 漢文 混用 記事에 뒤에

× 붙임 까지 省略한 것에 對해서는
印刷所 形便이 있을 뿐 아니라

本社로서도 여러 모로 생각한 끝
에 不得已 그라기로 된 것이니

× 별리 짐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七月一日에 發行하겠다고 한 것
을 이제야 내 놓게 되어 實로

× 송편하나 이견 實은 이편만의 責
任이 아니니 앞으로 이 事業에

× 對한 教務先生 諸位의 迅速 且
熱烈한 協力을 바라마지않읍니다

× 投稿 讀者 增募 誌代 先納 等
에 對하여 많이 애써 주셔야 하
겠읍니다

× 뜻 같아서는 꼭 片刊으로 하였
으면 하였오나 基金問題等 形便으
로 얼마동안 每月 發行을 免할

×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何如間 本誌의 將來가 讀者同志
여러분의 協力如何에 달렸다는 것

× 을 깊이 認識하시기 努力하
려니 努力하

끝으로 夜勤까지 하여가며 애
써 주신 印刷局 職員 여러분께

× 感謝를 올리며
讀者 여러분의 健闘을 부치념 앞
에 빕니다

× 三四、七、三〇

× 恩 錫
空 田

圓光

新刊 第一號

二〇〇圓

四二八二年七月二十日印刷

四二八二年七月三十一日發行

編輯兼 李 共 珠

發行人 李 承 用

印刷人 李 承 用

全北全羅府青石洞六四

印刷處 全州日報印刷局

全北益山郡北一面新羅里

發行處 圓佛教 圓光社

原稿 募集 !

本誌는 여러분의 原稿를 歡迎 發表합니다

政治와 時事 論評을 除한 一切 感覺 感想 意見 處理 詩歌

隨筆 及 敎理 敎史 研究論文等 무엇이나 많이 投稿해 주십시오

또 本誌에 對한 希望 條件 批正等도 大歡迎 합니다

특히 敎務 先生 諸位는 地方 狀況 報告와 管下 敎徒의 美行

報告를 많히 보내 주십시오 宗法室의 勘定을 얼어 適當히 次第

로 發表 하겠습니다

圓光社 編輯部 白